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제335호
2022년 3월호

www.snuaa.org news@snuaa.org

‘마운트 버논’에서 대통령의 길을 묻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은퇴해 살았던 버지니아 ‘마운트 버논(Mount Vernon)’에는 그의 삶을 스테인드 글래스에 그려 전시, 후대에 교훈을 주고 있다. 김현정 동문(왼쪽 · 미대 94)이 조각가의 눈에 비친 마운트 버논을 글로 담아냈다.

〈관련기사=16~17면〉

세금 · 투자 · 건강 · 법률 · 골프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웹사이트에 게재… 궁금증 풀어줘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 · 공대 61)가 동문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AskSNUAA)’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동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실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동창회 웹사이트(http://www.snuaa.org)를 통해 4월 1일부터 제공된다. 질문은 ‘Questions?’ Board에 직접 질문하든지 아니면 웹매스터(brainnet@snuaa.org)에 이메일로 보내면 가능한 한 이메일 접수 2~3주 내로 답변을 같은 Board에 게재한다.

동창회 브레인네트워크 위원장인 한홍택 박사(공대 60 · UCLA 석좌교수)는 “동문들께서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은 주제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제 31차 평의원 회의
6월 24~26일
관련기사=3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세금, 부동산, 법률, 건강, 은퇴, 반려동물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망라한다. 한 위원장은 이외에도 음악이나 하이킹, 골프, 목공예, 낚시, 미술, 사진 등 취미생활과 관련한 문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동문들 가운데는 의사, 변호사, CPA, 재정전문가, 교수, 엔지니어, 카운슬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 분들이 동문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동창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여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만큼 익명으로 문의해도 된다.

요즘은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 분야와 관련한 문의도 환영한다.

웹사이트에 실리는 ‘Questions?’는 동창회보에도 게재해 온라인/오프라인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동창회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도움말을 주시거나 전문가 칼럼을 쓰실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찾고 있다.

문의: brainnet@snuaa.org

“우크라이나 위해 기부금 모은다”
목표액 $20,000… 동창회 $5,000 출연

미주 동창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노명호 회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 빨리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창회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기부 목표 총액은 $20,000. 노 회장은 “동창회 차원에서 이미 $5,000를 기부금으로 내놓았고 나머지는 동문들의 도네이션으로 충당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는 국세청(IRS)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어 우크라이나 돕기 기부금은 모두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

한편 동창회는 모은 기부금을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 · 유엔아동기금)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금 체크 보내실 곳:
SNUAA USA(미주동창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Payable to: SNUAA USA
* 문의:
이메일: snuaausa30@gmail.com
전화: (213) 503-6964

〈관련기사=3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 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벤자민 홍 행장
LA 폭동 때 피해업소에 무담보 대출, 떼인적 없어

“개인이나 기업이나 베풀어야 해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홍병각(벤자민 홍) 동문(문리대 정치학 53)은 한인금융계에선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그런데 경영철학을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다소 뜬금없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다름아닌 ‘베품’이었던 것. 서울대발전기금으로 20만 달러, 서울대학병원에 10만 달러를 내놔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벤자민 & 비비안 홍 파운데이션’을 통해 한인가정상담소, UCLA, 한인청소년협회 등에 20만 달러가 넘는 통큰 기부를 했다.
그의 베품의 철학은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A의 한인커뮤니티는 참혹한 현실과 맞닥트려야 했다. 이른바 ‘사이구(4·29) 폭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많은 타운 업소들이 약탈을 당하고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가 됐다.

벤자민 홍 · 비비안 부부

‘강해야 살아남는다’ 6·25 전쟁 때 체험
주류은행 입사 5년만에 부사장 승진
SBA론, 주식공모, 인수합병 등 ‘최초’

▲ 지난 2000년 한국 제일은행 뉴욕지점 인수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벤자민 홍 행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LA 폭동 때 피해 한인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벤자민 홍 행장은 피해 업소에 10만 달러까지 무담보 대출을 해줘 재기를 도왔다. 〈사진=중앙일보〉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홍 동문은 당시 한미은행장이었다. 상당수 은행고객들이 피해를 입어 재기가 불투명했다.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밤새 잠을 못잤어요. 아무리 궁리해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성장사가 떠올랐다. BoA가 세계굴지의 은행으로 태어난 건 아이러니하게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할까.
1906년 강진이 샌프란시스코를 덮쳤다. 규모 8.3이었으니 ‘빅원’에 가까웠다. 신생 커뮤니티 뱅크인 BoA 창립자 마다데오 피터 지아니니는 복구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줬다. 기록에 따르면 지아니니는 마차에 현찰을 가득 싣고가 거리에서 ‘묻지마’ 대출을 해줬다. 돈을 뿌렸다고 해야 옳지 싶다.
“다음날 아침 벌떡 일어나 은행으로 달려가 이사들을 설득했어요. 무담보 융자를 해주자고요.”
대부분 부실위험이 크다며 반대의사를 냈다. 홍 동문은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영철학을 피력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은행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반성장을 할 수 있어요.”
폭동이 일어난지 나흘 후 한미은행은 대출을 시작했다. 업소 당 최대 10만달러까지 무담보로 빌려줬다. “도박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업소가 살아야 우리 은행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10만 달러 융자를 받은 고객은 50여명. 이 가운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기적이랄 것도 없었다. 은행이 우릴 믿고 돈을 빌려줬으니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한다는 정서가 고객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베풀어야 관계가 형성된다’는 그의 신념은 은행에 위기가 닥쳤을 때 빛을 발했다. 한미은행도 지난 2009년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껴갈 수 없었다. 일부에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까지 우려했다. 한미은행은 그러나 살아남았다. 그것도 건재한 상태로. LA폭동 때 ‘은혜’를 입었던 고액 예금주들이 은행을 받쳐줬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배신할 수 없다며 홍 동문과 은행을 지지해 준 것이다.
홍 동문의 소신과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전쟁이 그를 강하게 키웠다. 6·25가 터졌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19살. 특채로 중위 계급장을 달고 통역장교가 됐다. 소속부대는 강원도 인제의 9사단. 부대가 인민군에 포위돼 퇴로마저 끊겼다.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에 국군병사들이 쓰러져갔다. 민씨라고만 기억하는 특무상사가 그를 살려냈다. 그 상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홍 동문도 없었을 터다. 그 이후 그는 직급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 몸에 뱄다.
죽음의 공포는 잊지 못할 충격으로 그의 뇌 한 켠에 입력돼 있다. “그때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6·25가 그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이다. 홍 동문의 은행경영 기본전략인 선택과 집중은 전쟁터에서 익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육의 힘이다. “교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유학와서 절감했어요.”
홍 동문은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땄다. 그가 39세 때다. 처음엔 나이 때문에 입학허가서가 나오지 않았다. “남들이 편하게 공부할 때 나는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다”는 그의 진정성이 인정돼 UCLA의 높은 문이 열렸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의 혼란기, 전쟁으로 인해 그는 제대로 공부한 기억이 없다. 하루 3~4시간 쪽잠을 자며 책과 씨름했다.
졸업 후 그가 입사한 곳은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뱅크(FIB). 입사 5년만에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고속승진했다. 1970년대 미국 은행엔 유색인종 간부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언젠가 간부회의 때 “너는 흰 벽에 붙은 파리 한 마리 같다”는 한 백인 임원의 농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뭐니뭐니해도 그가 한인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SBA융자 도입이다. 소상공인에게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홍 동문이 처음으로 SBA 론을 담당할 간부들을 교육했다. 이들이 오늘날 한인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이익창출 부서인 SBA론 파트를 이끌고 있다.
홍 동문이 이룬 또 다른 성과는 여성의 과감한 발탁이다. ‘페미니스트’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역시 특유의 소신으로 밀어붙였다. 처음으로 여성 지점장에 이어 은행장도 배출하는 등 홍 동문에겐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한인 은행 중 처음으로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켜 지점망을 넓혔다. IMF 사태를 맞아 뉴욕소재 본국은행들도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M&A를 적극 추진한 것. 처음엔 본국 은행들이 한낱 교포 은행이 인수한다는 데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끝에 성사시켰다.
한인사회에서 처음 시도한 주식 공모도 그의 또다른 성공사례로 꼽힌다. 홍 동문은 문닫기 직전의 나라은행 구원투수로 등판, 주식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모았다. “1,200 달러로 나라은행의 주인이 되세요”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벌인 결과 200여명이 이에 호응, 결국 200만 달러의 증자목표를 달성했다. 오늘의 ‘뱅크 오브 호프(Bank of Hope)’의 기반을 만든 셈이다.
10년 전 은퇴한 그는 LA 남쪽의 어바인에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송년대잔치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한 그는 자신의 ‘18번’을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고 털어놨다. 모든 것이 생소했고 처음 겪는 외로운 이민생활의 길잡이를 ‘마이 웨이’ 정신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She Is My Way”라며 아내 비비안을 동문들에 소개해 큰 박수를 받았다.

LA 인근에 소재한 퍼시픽 팜스 리조트. 36홀짜리 챔피언십 골프코스를 갖춘 럭셔리 호텔로 오는 6월 평의원 회의 장소로 예약돼 있다.

6월 평의원 회의에 관심 고조
팬데믹 끝난다 … 캐나다도 참석
퍼시픽 팜스는 골프장 갖춘 럭셔리 리조트

"(캐나다-미국) 국경이 오픈되면 평의원 회의에 꼭 참석할 생각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동창회장인 장희순 동문(문리대 75)은 벌써부터 오는 6월 LA에서 개최되는 평의원 회의 참석에 마음이 들떠 있다. '국경 오픈'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해도 요즘 상황으로 보면 얼마안가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국경이 활짝 열릴 게 틀림없어 보인다.

장 회장은 최근 밴쿠버의 200여 동문들의 주소를 미주 동창회에 보내와 동창회보 구독을 신청한 바 있다.

최근들어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백신접종카드 제시 의무화 조치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등 미국사회는 지난 2년여 지속됐던 팬데믹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회장처럼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주 동창회 측은 각 지부 회장단뿐만 아니라 2000년대 학번 등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여해 동창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회의가 열리는 퍼시픽 팜스 리조트는 LA공항에서 동쪽으로 34마일 떨어진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위치해 있다. LA한인타운과도 불과 20여 분 거리다.

럭셔리 호텔로 꼽히는 퍼시픽 팜스는 특히 남가주 최고의 종합 리조트 단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36홀짜리 챔피언십 골프장을 비롯해 크고 작은 회의를 열 수 있는 컨퍼런스 시설, 딜럭스 레스토랑 등 숙박과 엔터테인먼트 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풍광도 빼어나 '언덕 위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다.

* 퍼시픽 팜스 리조트
  1 Industry Hills Pkwy
  City of Industry, CA
* 웹사이트:
  www.pacificpalmsresort.com
* 문의:
  (626) 991-4457(노명호 회장)
  (714) 260-5483(강호석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돕기 캠페인
"6·25 세대는 남의 일 같지 않아"

"6·25를 겪은 선배 세대는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대부분 참담한 심정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혜정 박사(생과대 77)는 딸이 유럽에 살고 있어 요즘 신경이 온통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다. 러시아 군이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가까이 살고 있어서다.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장기화된 무력분쟁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은 더욱 악화돼 어린이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가 9살 때 6·25가 터졌어요. 그때의 끔찍함은 떠올리기조차 싫습니다." 미주 동창회 노명호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며 70여 년 전의 상황을 떠올렸다.

남종우 남가주 공대회장(공대 62)도 전쟁을 겪은 세대에 포함된다. 캠페인에 참여해 미력이나마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말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 돕기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우크라이나에 선뜻 1,000만 달러를 내놔 할리우드의 기부 캠페인에 앞장섰다.

한편 유니세프는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에 긴급구호센터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어린이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주 동창회가 유니세프를 기부처로 결정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김종섭 고문 3만불 모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세계 각국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본국의 동문들도 우크라이나 돕기에 힘을 보탰다.

주인공은 김종섭(문리과대학 동창회장) 삼익악기 회장. 동창회 차원에서 3만달러를 모금,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기로 했다.

미주동창회 상임고문도 겸하고 있는 김 회장은 "3월초부터 우크라이나 성금 모금이 시작됐으며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달러가 넘게 모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차 목표액 3만달러가 채워지면 서울의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시 6·25 때 북한의 남침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다"며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중 동창회 차원에서 돕자는 목소리가 나와 기부금 모금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 맞아 고아단체에 성금
미주 동창회 1,000 달러

미주 동창회가 설을 맞아 한국의 고아들을 돕고 있는 자선단체에 1,000 달러를 기부했다.

노명호 회장은 지난 1월 20일 'Sharing Love in Korea'(SLK)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우리의 큰 명절인 설을 맞아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정성을 보탰다"고 말했다.

SLK는 한인 1.5세와 2세들이 중심이 돼 조직한 비영리 자선단체다. 5년 여전 한국방문 중 우연히 고아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고아들과 일대일 결연사업을 펼치고 있는 SLK는 서울대 동문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노 회장은 "자선사업도 동창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며 "앞으로 한인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 마감
3월31일… 1인당 1만불, 10명까지

미주 동창회의 장학금 신청이 3월 31일로 마감된다.

동창회가 처음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펼치는 이 장학금은 1인당 1만 달러로 모두 10명까지 지급한다.

장학금은 서울대 출신이나 동문 자녀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한인 커뮤니티에 오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표는 4월 30일이다.

미주 동창회는 매년 10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한인 인재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서울대 동문들이 멘토링을 제공,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신청: www.snuaa.org〉services〉-scholarship
문의: scholarship@snuaa.org
전화: (213) 908-5586

‘버벌지’ 황산덕 교수
“내 삶의 길라잡이… 고비때마다 일으켜세워”

송학린
법대(59)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매우 중요한 세 사람이 있으니 부모, 스승, 친구라 한다.

교회 주일학교 반사였던 어머니는 내가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다닐 즈음 잠자기 전 나에게 바다를 갈라 길을 내는 영웅 이야기, 큰 건물 기둥에 묶인 사람이 단 한번 힘을 내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장사 이야기, 지혜 많은 임금님, 장님을 눈뜨게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 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

지금도 어머니께서 들려 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어린 나에게 인생의 큰 꿈을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

평양사투리 공감대

내가 기억하는 스승님은 운 좋게도 딱 두번 만에 대학에 들어간 후 기분 좋고 신바람나는 일학년, 첫 학기에 만난 교수님이다.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다.

그 분은 법철학과 형법을 강의하셨고 훗날 법무부 장관과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신 황산덕 교수님이다.

한번은 강의 시간에 알아 듣기 쉽지 않은, 실로 나 혼자만 이해했으리라 생각되는 사투리 한 단어를 쓰셨다. ‘버벌지’. 지금은 한글 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고 찾기도 어려운 ‘벙어리’라는 뜻의 이 단어는 내가 아직도 즐겨 쓰는 평양 사투리다. 아마 교수님과 내가 무엇인가 통하는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었던 공감대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다.

당시 교수님 따님은 나와 같는 반 동급생이었고 교수님이 매주 참석하시던 등산 모임에도 나는 빠짐없이 참가하곤 했었다.

등록금 해결해줘

그러나 일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2학년 등록을 준비해야 할 무렵 도저히 등록금 마련이 불가능해 휴학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나의 사정을 알게 되신 황산덕 교수님이 이를 해결해 주셨고, 졸업때까지 대여장학금도 받을 수있도록 주선해 주셨다.

교수님이 등록금을 해결해 주셔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때, 언젠가 나도 1억의 장학금을 기증하리라 생각했다. 1억은 그 당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액수였다.

사람이 살아 가며 생기는 많은 인간관계들에 대해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그 시절에 특별히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사려깊은 도움과 용기를 주신 스승님 한 분으로 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관심과 사랑은 지금 생각해도, 내가 행운의 학생중 한명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불효자였음을 깨닫게 된다 했던가? 언제 부터인가 존경하는 이 스승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잊지 못하고 적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 오고 있다.

스승님이 몸소 보여 주신대로 나와 같은 처지에 있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해 과부의 동전의 마음으로 1989년 작고하신 교수님을 기리며 ‘황산덕 장학기금’을 만들었고,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신축에 기부금을 보냈다.

황산덕(1917~1989) 교수는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를 외치는 학원사태가 위수령 발동으로까지 확대되자 학생시위를 감쌌다는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쫓겨났다.

남 위해 등불켜야

이것이 스승님의 그크신 은혜에 보답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지만 내 젊은 대학시절 나에게 필요했던 것을 직접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신 스승을 만났다는 사실은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

남을 위하여 등불을 켜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진다 하지 않았던가? 이제 80 중반을 넘어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니, 남을 위하여 등불을 들었던 것이 결국은 나의 가는 길을 밝혀 주었다는 생각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중요한 세사람 … 부모, 스승, 친구. 나에게 이렇게 존재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모, 스승, 친구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본다.

인생에서 만났고, 헤어졌고,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해 보는 그런 나이가 되고보니 아직도 이 나이에 등산, 골프, 스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아주 고마운 일이다. 인생은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행이 아닌가.

지금도 수시로 내 주소지인 맨해튼, 뉴욕은 물론 서울, 부산, 로스앤젤레스, 뉴저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친구들로 부터 ‘100세 건강법’ ‘황혼 지침’ 등 익혀 두어야할 정보를 교환하며 활력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좋은 부모, 덕 높으신 스승, 건강하고 정깊은 친구들을 보내주신, 내 인생을 설계해 주신 그분께 끝없는 감사를 드린다.

50세에 AWT 창업한 강정수 동문
“늦깍이요? 미국서는 딱 좋은 나이에요”

“나이 오십에 창업을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강정수 동문(문리대 61)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미국서는 ~” 강 동문은 이렇게 운을 뗐다. “창업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이번엔 돈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회사를 차리려면 초기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조달하셨나요. 은행 대출받으셨나요?” 역시 대답은 “미국서는 ~”으로 시작했다. “미국서는 기술과 열정만 있으면 돈 많이 없어도 됩니다.”

이처럼 강 동문은 나이 오십이 넘어 거의 무일푼으로 창업을 해 이른바 ‘대박’을 쳤다. 그가 세운 ‘어플라이드 웨더 테크놀로지(AWT)’는 ‘날씨’와 관련한 데이타를 전세계 선박들에 판매하는 회사다.

강 동문에 따르면 기상과 해양에 관련한 데이타다. 무척 어려운 분야다. 시쳇말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일 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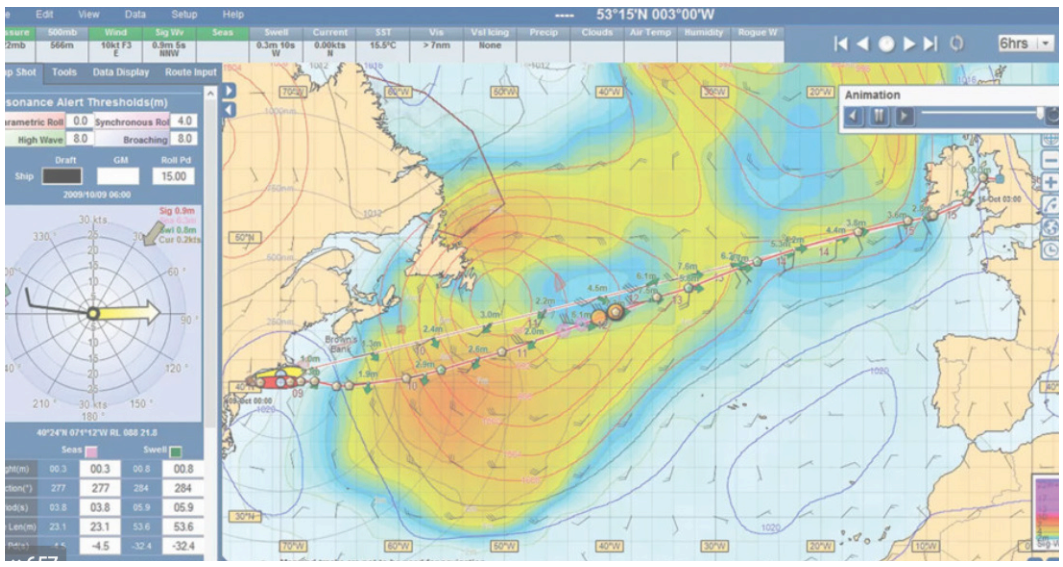
강 동문은 이렇게 비유했다. 자연과학은 대체로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 하나는 ‘리니어(linear)’ 곧 예측가능한 ‘선형’ 학문이다. 대부분의 자연과학이 ‘리니어’에 속한다. 쉽게 말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분야다.

그러나 ‘넌리니어(nonlinear)’, 곧 ‘비선형’의 세계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콩 심은데 옥수수가 나고, 팥 심은데 뜬금없이 딸기가 열릴 수도 있다. 날씨가 그렇다는 것이다. 예측이 어려운 카오스의 세계가 기상학이다.

지난해 기후와 인간의 이해를 넓힌 물리학자 세 명이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것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 학문인지 가늠할 수 있겠다.

강 동문의 전공이 바로 대기과학이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넌리니어’ 학문이다.

◀ 나이 오십에 창업한 강정수 동문.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기술과 열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어 성공의 역사를 썼다.



▼ 강 동문이 창업한 AWT는 기상과 해양 데이타를 선박에 제공하는 회사다. 안전 운항은 물론 연료 절감 효과도 커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선박에 날씨 관련 데이타 서비스
20척으로 시작, 5천 척으로 늘어
태풍 ‘사라’에 충격, 대기과학 전공

왜 이처럼 어려운 학문에 도전했을까. 그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 그래서 강 동문을 포함한 여섯 형제는 모두 의대진학이 삶의 목표였다. 그런데 고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마침 강 동문은 한반도를 강타한 사라호 태풍을 몸으로 겪었다.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다시피했다. 강 동문이 의학에서 대기과학으로 진로를 튼 배경이다.

대학 졸업 후 단돈 250 달러를 들고 미국에 유학왔다. 마이애미 대학의 해양대기과학 석사과정에 등록은 했으나 돈이 떨어졌다.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했어요. 받아 주더라고요.” 예의 입버릇이 또 나왔다. “미국에선~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학위를 끝낸 강 동문은 기상정보업체에서 15년 넘게 일했다. 성실히 일한 덕분에 훗날 창업하자마자 어렵지 않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운도 따랐다. 창업한지 얼마안돼 홍콩 출신의 엔지니어 F.P. 차우를 만났다. 영국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재다. 그가 ‘포스트닥’ 과정으로 UC 버클리에 왔는데 영어발음이 지독히 나빴다. 도저히 학생지도를 맡길 수 없게 되자 교수가 차우를 강 동문에 함께 일하라고 소개한 것.

기상관련 데이타는 워낙 방대해 위성으로 받으면 엄청 비쌌다. 차우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5~6명의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몇 달 걸려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차우 혼자 밤을 새가며 매달린 끝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600만 달러 가치가 있었지요.”

행운의 여신은 강 동문을 향해 늘 미소를 보냈다. 기상관련 데이타는 콜로라도의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았다. 15일치 자료를 12시간 간격으로 고객들에게 보내줘야 했는데 위성 전송을 하면 사용료가 비쌌다.

그런데 마침 운좋게도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FTP가 개발됐다. 공짜로 고객들에게 데이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업할 때 고객은 배 20~30척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지사를 설치해 고객을 끌어왔다.

강 동문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해양강국인 영국 지사 직원들의 열정이다. “영국인들은 책임감이 무척 강해요. 맡겨진 일은 틀림없이 해냈어요. 덕분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지요.”

창업 20년 후 쯤 강 동문의 회사가 확보한 고객(배)은 전세계 5,000여 척으로 크게 늘었다.

배 한 척당 받는 서비스료는 연 1~2만 달러에 이른다. 데이타에는 배가 어떤 항로를 택해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또 연료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어 고객들의 신뢰가 높았다.

전세계 바다를 운항하는 대형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 동문은 몇해 전 회사를 매각하고 현역에서 은퇴했다. 그래도 창업 얘기만 나오면 힘이 솟는다. “미국에선~ 나이와 돈이 걸림돌이 안 됩니다. 기술과 열정, 이 둘만 있으면 되요. 동문 후배님들 힘 내세요.”

‘제노스코’ 고종성 박사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어디까지 왔나”
뇌속의 아밀로이드 단백질 제거가 관건 … 항체 연구 한창

다음은 바이오벤처 기업 ‘제노스코(GENOSCO)’ 대표인 고종성 박사가 지난 3월 6일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유경)가 주관한 포럼에서 강연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동창회의 학술간사 이헌구 박사(자연대 98)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의 주제는 ‘알츠하이머 신약개발 어디까지 왔나.’ 고 박사는 치매관련 증상과 치료제 개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냈다. - 편집자

창조주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소중히 싸서 외부에서 침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뇌는 웬만한 충격에도 버티도록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보호막이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뇌가 병이 들면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치매는 바로 뇌질환이다. 치매가 왜 치료가 어려운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 등의 요인에 의해 손상 또는 파괴돼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일컫는다.

치매 가운데 가장 흔한 질병이 ‘알츠하이머’로 치매환자 중 72.5%를 차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는 배경이다. 뇌세포의 퇴화로 인해 발병하는데 인지기능이 점차 저하돼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한다.

뇌졸중 등 뇌의 혈액공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전체 환자의 11.3% 가량이다. 뇌질환 종류와 크기,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루이소체, 파킨슨병 등의 치매는 16.2%다.

치매는 세계적으로 4초에 1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1억명을 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에서만도 580만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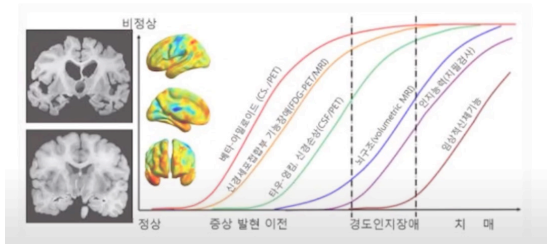
발병률은 대체로 시니어들 사이에 높게 나타난다. 60세 이상은 10%, 75세 이상은 15%, 85세가 넘게 되면 절반 가량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암 보다 무서운 병이 치매인 것이다.

오늘 포럼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병인은 몇가지 가설이 있다.

우선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다. 뇌속에 플라크 형태로 응집된 단백질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타우 가설이다. 타우는 세포내 미세소관(microtube)과 관계돼 생성되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응집해 형성된 타우 탱글(tau tangle)은 알츠하이머 발병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주관한 연례 학술대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고종성 박사.



알츠하이머 진행과정. 초기 단계에선 정상에 가깝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

정상인의 뇌(왼쪽)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한 눈에 봐도 치매 환자의 뇌가 현저히 쪼그라들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치매는 환경 등 후발성 요인이 90%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증상 나타나
제노스코, 2024년 치료제 개발 목표

이외에도 아세틸콜린 가설도 있다. 아세틸콜린은 신경전달물질인데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전달이 제대로 안돼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세가지 중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탱글이 가장 우세한 가설이다.

뇌의 무게는 남자가 1,400 그램, 여자가 1,250 그램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데 뇌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으며 하루 평균 2~10만 개의 뇌세포가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츠하이머는 후발성 요인이 90%로 거의 절대적이다. 알려진 유전적 요인은 10%에도 못미쳐 치매 예방에는 환경과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요즘은 영상(PET, MRI) 기술의 발달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탱글 등 뇌의 내부를 촬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스텔스 킬러’라고 불리는 치매는 아직까지 증상 완화제 이외는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완화제도 FDA의 허가를 받은 것은 4개 밖에 안된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겨우 이 정도다.

치매는 예방이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는 정상인과 거의 구별이 안되기 때문이다. 경도인지장애(MCI)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제는 MCI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 단계를 지나 치매로 최종 판정되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바이오젠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이 관심을 끌었었다. FDA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치매환자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효능부터 부작용, 비싼 가격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두카누맙은 1회 투여에 거의 5,000달러나 든다. 1년에 몇 차례 맞아야 하는데 보험회사도 커버를 안해줘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요즘은 항체를 치료제로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알츠하이머 원인으로 꼽히는 단백질 침전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원리다.

뭐니뭐니해도 알츠하이머는 ‘비약물’ 예방이 최선책이다. 유산소 운동(걷기), 인지강화운동(책보기), 위험인자 관리, 사회성 강화(가족과의 대화), 식이조절(항산화 물질) 등 다섯가지(finger program)를 유념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문지방을 벗어나자’ ‘부지런하자’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실천에 옮겨보자.

제노스코의 전략은 저렴한 가격대의 경구복용 가능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연구에 필요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10년 주기로 신약을 개발해 왔다. 2004년에는 당뇨치료제, 2014년에는 폐암치료제, 2024년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JSKOB777)를 개발할 꿈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징기스칸의 명언을 소개한다. “한사람이 꾸면 단순한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동문 여러분들이 함께 해준다면 치매치료제 개발은 현실이 될 것이다.

고종성 박사는
사대 화학교육과(75)
캘리포니아 공대(CalTech) 박사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장
제노스코(GENOSCO) 창업

The Father … 가까운 미래의 내 이야기
평화로운 말년에 불쑥 찾아온 불청객 '치매'

박희진
오레곤 동창회장

얼마전 영화 '더 파더(The Father)'를 보고는 이 생각 저 생각 안할 수가 없었다. 영화를 본 많은 지인들의 감상평은 대부분 '슬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필자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 이상의 어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나오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영화의 기저에 깔려있는 건 맞다.

그러나 솔직히 답답함과 안타까움, 여기에 더해 원인 모를 무력한 분노도 치미는 건 왜일까.

'더 파더'가 오스카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받은 상 따위는 잠시 제쳐두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기분을 얘기하는데 무슨 상을 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않기 때문이다.

'더 파더'는 소위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그 딸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오롯이 환자의 시각에서 전개되는 구성이어서 두려움과 함께 몰입감을 선사한다. 안소니 홉킨스와 올리비아 콜맨이 부녀로 호흡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보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영화 속 얘기가 남의 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감독과 여배우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고 연기해서인지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치매 증상을 1시간 37분짜리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에 다 녹여놔 어느 한 대사도 예사로이 지나칠 수 없었다.

주인공인 나(안소니)는 평화롭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간병인은 물론이요 가정부도 필요없다는 데도 자꾸만 누군가를 들이려 하는 딸 앤의 행동이 거슬릴 뿐이다.

영화는 어렵사리 구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간병인이 울면서 '안오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부터 시작된다. 또 간병인과 불화를 일으킨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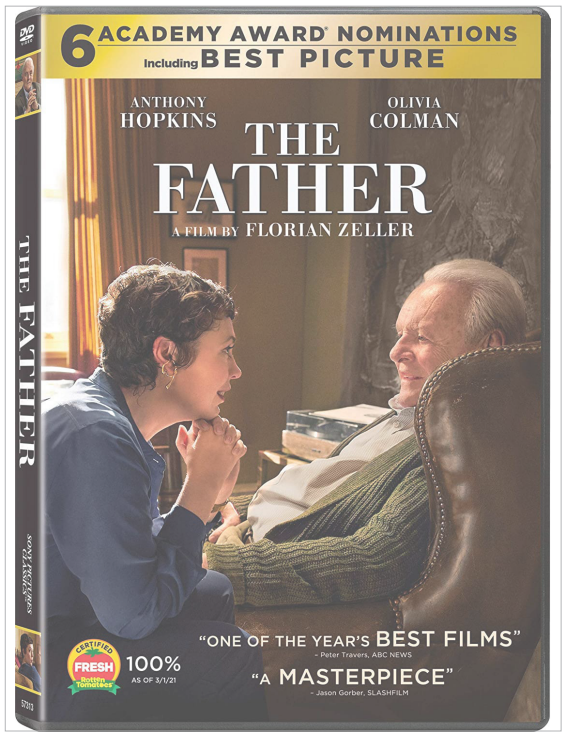
그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딸의 걸음걸이에서 당혹감과 불안함, 허탈함, 무력감 등이 그대로 느껴진다.

영화는 안소니를 통해 치매증상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기억상실은 물론 누군가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는 억지를 부린다. 끊임없는 간병인들과의 불화, 창문 밖은 볼지언정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문을 꼭 닫고 살려는 폐쇄적인 태도,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사람을 혼동하며 대화가 되는 듯하다가 말이 갑자기 거칠어지며, 자신을 도와주려는 딸에게도 조차 자기것을 뺏아가려한다는 망상에 빠져 노여움을 드러낸다.

본인은 정상이니 절대로 집을 떠나 요양시설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부린다. 누구의 도움없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너희들이 늙음을 아느냐"
치매노인에 비친 세상 그려



영화 '더 파더' 포스터. 안소니 홉킨스는 이 영화에서 80대 치매 노인역을 완벽하게 표현해 내 아카데미 사상 최고령 남우주연상의 기록을 세웠다.

간병인을 뒀는데도 거의 매일 한 번씩 들려 아버지 안소니를 챙겨왔던 딸 앤의 얼굴에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어찌할지 모르는 절망스러움을 보여준다. 특히 새 간병인 로라와의 첫 대면 때 아버지의 거친 행동에 반은 울고, 반은 웃는 그녀의 얼굴, 그 얼굴에 새겨진 미안함, 슬픔, 당혹감 섞인 얼굴 표정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잔상처럼 떠오른다.

어떤 자식들은 간병에 지친 나머지 부모와 절연을 하고, 그래도 부모 곁을 지키는 자식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웃는 낯이 될 수 없다.

결국 치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모든 게 끝나는데 그때 쯤이면 자식들의 가정도 이미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아마 세상의 많은 자식들이 영화의 캐릭터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지 않을까 싶다.

영화는 치매환자를 다루는 탓에 앞뒤의 스토리가 맞지 않아 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혼란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치매환자가 보는 세상을 가감없이 보여줘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며 말하는지 이해하는 방편도 될 수 있겠다.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인데 남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뭔가 일을 꾸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지는데 그 과정도 기억에 없다. 사위가 자신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요양원 직원이었다. 이쯤에서 영화를 논리적으로 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아버지는 점점 기억이 사라져 간다. 어린 시절 기억만 남게 되는데 결국 엄마를 찾으며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

영화를 보며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지인들을 떠올리게 된다. 과연 어떤 상태까지가 진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예전 사람들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내가 숨만 쉰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닐 터다. 내 주변사람들을 몰라보고 망상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게 과연 나인가.

그나마 영화 속의 주인공은 서양 아버지답게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마 이 영화 속 이야기 이상으로 주변사람들을 피폐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 의학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더 포커스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희진 박사는
농생대 78학번
미시건대 기계학 박사
Flonomix에서 HVAC 프로젝트 담당

동창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전 미주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2022년 2월 현재 모두 8,000부를 인쇄해 동문 각 가정에 우송한 바 있습니다. 회보는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비납부 동문님들은 전체 구독자의 9%에도 못미치는 69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회보 제작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부디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동창회 운영을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제335호

‘제 1 기 풀브라이트 장학생’ 김용건 동문

“경성제국대와 서울대 두 군데 다녔어요”

김용건 동문 부부

‘뉴딜정책’ TVA 입사, 화학 비료 연구
KAIST와 KIST 등에 기술과 경험 전수
애틀랜타로 은퇴, 동창회 조직한 ‘원로’

“대한민국 만세!”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배웅나온 처 외삼촌이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내게 외친 만세 소리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얼마나 조국이 그리웠으면 내게 이 같은 구호를 외쳤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공항을 이륙한 노스웨스트 항공기 창 밖으로 처 외삼촌의 모습이 시야에서 벗어나자 만감이 교차했다. 문득 고향 부산에서 목탄 화물열차를 타고 섰다 갔다를 반복하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가 주마등처럼 스쳤다. 서울대학(당시는 경성제국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몰래 기차에 올라타고는 서울역에 도착하기 직전 뛰어내려 줄행랑을 친 것이다.

경성제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 과정이었다. 예과를 마칠 무렵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에 편입돼 한국 최초의 국립대학이 설립됐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문리과대학 화학과에 지원했다. 그러나 2학년 때 6.25 전쟁이 터져 나는 부산의 전시연합대학 천막교실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얼마 배우지도 못한채 졸업장을 받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한심했다. 학위을 받은 화학과 졸업생은 불과 10명. 입학은 80명이나 했는데….

교수가 부족했던 시절이어서 쉽게 부산대학교에 취업이 돼 강단에 섰다. 학생들과 나이차도 거의 없었고 사실 실력도 별로여서 학생들에게 함께 공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의하니 모두 선뜻 나를 받아줬다.

그렇게 교수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4.19 혁명이 터져 대학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넘쳐흘렀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 선발시험에서 당당히 합격,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도쿄에 들러 처 외삼촌의 환대를 받으며 곳곳을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다.

미국내 첫 기착지는 하와이의 호놀룰루. 전쟁으로 황폐화되다시피한 대한민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충격이었다. 여기서 한달동안 미국대학생활과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내가 유학한 곳은 미주리 주립대학(University of Missouri)이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은 1년 단기 과정이어서 배워야 할 과목이 5개나 됐다. 한 한기가 끝날 무렵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났다. 대학 측에서 연구조교 일자리를 주겠다고 해서 유학기간이 연장되는 행운을 안았다.

미국온지 4년만에 나는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상을 품에 안은 듯 내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학위를 받고 나니 또 욕심이 생겼다. 미국서 경험을 쌓고 귀국하면 조국에 더 큰 도움이 될텐데…. 그런데 내 E 비자는 공부가 끝나면 귀국해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재입국이 가능했다. 난감했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 국무부에 문의한 결과 한국정부가 승인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마침 한국의 고위직에 있었던 지인이 외무장관에 청탁, 비자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

지도교수 한 분이 TVA를 적극 추천하며 소개장을 써줬다. 첫 직장이었지만 내가 TVA에서 은퇴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이쯤에서 TVA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테네시 밸리 오소리티(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첫 글자를 딴 공공기관이다. 대공황 시절인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7개 주에 걸쳐있는 테네시강 유역의 홍수방지 댐 건설, 농토개간, 토양과 광물자원의 보호관리, 산림녹화, 동력자원 개발 등 다목적 사업을 수행했다.

▲ 테네시 밸리 개발청(TVA)이 주도한 농토개간 사업. 김용건 동문은 비료의 3대 원소 중 하나인 인(phosphate)을 정제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 1964년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부인과 함께 기념 촬영한 김용건 동문.

TVA의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비료생산과 개발이었다. 화학자의 도움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다. 나는 TVA 내 국립비료개발센터(NFDC)에 배치돼 양질의 비료개발연구사업에 투입됐다.

TVA는 1만명이 넘는 매머드 조직이었는데 입사할 당시 동양인은 내가 유일했다.

나의 첫 과제는 비료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인(phosphate)을 정제하는 것이었다. 인광석을 화학약품으로 분해하면 비료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불순물을 정제하는 것이 내가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TVA의 연구실에는 일본 중국 등지에서 기술자들이 찾아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배워갔다. 나중에는 한국 과학자들의 방문도 잦았다. 이것이 인연이 돼 KAIST, KIST 등 국책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줬다. 처 외삼촌의 ‘대한민국 만세!’에 보답했다고 할까.

TVA 근무시절 나는 4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허도 3건이나 되는 등 TVA 근무는 내 삶의 황금기였다.

1989년 TVA에서 은퇴하고는 한국인이 많이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주, 제 2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맨 먼저 한 일이 서울대 동창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첫 해 크리스마스 때 10명이 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회원이 수백명으로 늘어나 모임에 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이외에도 서울대 동문 5명과 함께 한미장학재단을 만든 것도 보람있는 일이었다. 올해는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몇년 전부터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우리 부부는 다섯 자녀에게서 손자 12, 증손자 4명을 얻어 어느새 32명의 대가족으로 불어났다.

지금도 나는 화물열차에 몸을 숨긴 채 서울에 와서 입학시험을 치렀던 그 옛날이 바로 엊그제 일인양 떠오른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는데 갚지도 못한채 떠날 것 같아 아쉽다.

서울대 후배들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늘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요.”

윤경민 동문의 '족보 이야기'

천년 역사에 학교 선생도 '언빌리버블' 놀라

"드라마 '뿌리'는 고작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너희 집 가문은 천년을 넘게 이어져 왔다니 …. 정말 '언빌리버블(unbelievable)'하네." 윤경민 동문(법대 55)이 손자의 얘기를 복기해 들려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교사가 드라마 '뿌리(The Roots)'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얘기해보라고 하자 손자 콜린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는 것. 그러고는 자신의 가문이 코리아에서 시작됐으며 38세손이라고 소개하자 교사도 믿기지 않는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더구나 두툼한 족보에 자신의 이름까지 올라있다는 얘기에 친구들도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파평(경기도 파주) 윤씨'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 윤신달이다. 그가 서기 893년에 태어났으니 올해가 그의 탄신 1129년째가 되는 셈이다.

"드라마 '뿌리'는 고작 몇십년에 불과한데 손자는 천년의 역사를 얘기하니 다들 놀랄 수밖에요." 윤 동문은 손자가 보여준 자긍심에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고 또다른 한편으론 뿌듯했다고 털어놨다.

'뿌리'는 서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비롯된 얘기다. 전사로 키워진 쿤타킨테는 부족의 미래 지도자. 그러나 영국 노예상에 붙들려 미국으로 팔려간다. 2대 딸 키지, 3대 손자 조지에 이어 4대 증손자 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다.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승리해 노예신분에서 풀려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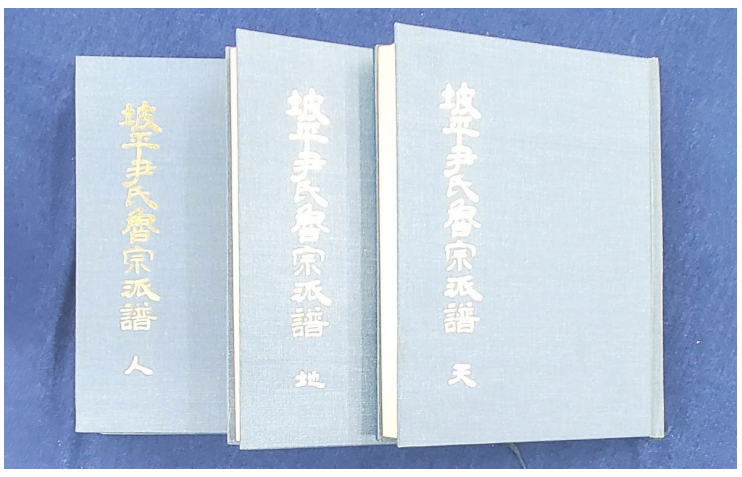
지난 1977년 ABC 방송이 8부작으로 제작, 방영한 이 드라마는 글로벌 히트작이 됐다. 2016년 리메이크돼 또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원작자는 알렉스 헤일리.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6·25 전쟁 참전용사여서인지 드라마는 한국서도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다.

이 드라마의 성공이 미국서도 뿌리찾기 운동이 펼쳐지는 계기가 됐다. 윤 동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족보와 같은 기록이 없어 대부분 교적부와 교회 묘지(church yard)를 추적, 뿌리를 밝혀낸다. 부시 전 대통령 가문도 이같은 경로를 통해 조상이 17세기 중반 스콧틀랜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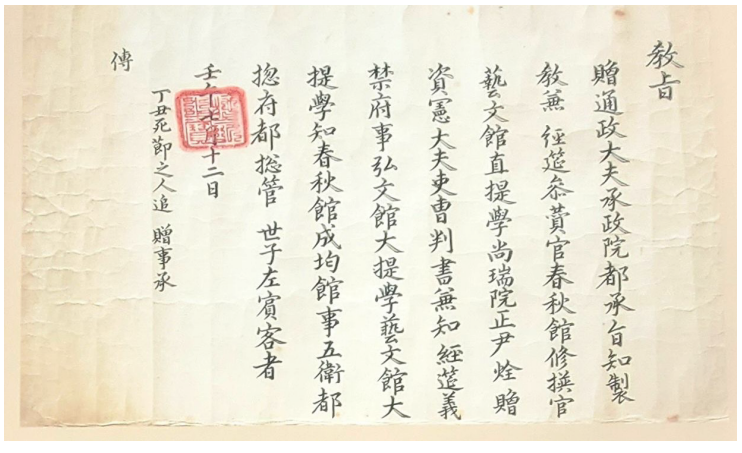
윤 동문은 1964년 오레곤 대학(University of Oregon)에 유학, MBA를 땄다. 그러고는 LA로 와 지난해까지 CPA 사무실을 운영했다. 꼭 53년을 살아 본관이 파평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LA라고 불러도 될 성 싶다며 농을 했다.

유학 올 때 가져온 족보는 윤 동문의 가보나 다름없다. 천(天), 지(地), 인(人) 세 권으로 된 족보는 그 자체로 역사책이나 다름없다. 족보를 읽다보면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것.

◀ 족보를 설명하는 윤경민 동문. 파평 윤씨 36세손이다.



▼ 천 · 지 · 인 등 세 권으로 된 파평 윤씨 족보.



▼ 숙종이 이조판서 윤전에 내린 교지. 윤씨 가문은 정승 11명, 판서 42명 등을 배출한 명문이다.

드라마 '뿌리' 히트로 미국서도 관심
'한자 문맹' 자녀에 '체인 이론' 설명

"요즘은 애완동물도 족보가 있잖아요. '페디그리(pedigree)'라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더 더욱 족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영어권에서 족보는 '지니앨러지(genealogy)'라 부른다. '패밀리 트리(family tree)'가 본래 뜻이라고 한다. 가족을 나무에 빗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취한다.

윤 동문의 자녀와 손주들은 영어권이다. 어려운 한자로 쓰여진 족보에는 당연히 문맹일 터. 족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할 테지만 너무 방대해 진즉에 포기했다.

대신 교지(敎旨) 세 장만큼은 영어로 옮겨 후손들에 물려줄 계획이다. 교지는 조선시대 왕이 고위관리에게 직접 준 임명장이다. 받은 이는 숙종 때 이조판서 윤전과 그의 처, 그리고 이조참판을 지낸 그의 아들 윤원거다. 교지는 문화재나 다름없어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할 작정이다.

윤 동문은 후손들에 족보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시킬까. "내 나름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체인 이론'입니다."

자전거의 체인을 예로 들며 족보의 중요성을 말해줬다고 한다. 수십개나 되는 체인 중 어느 하나만 고장나도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는다. 이에 빗대 38대나 내려오는 가문에서 어느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대가 끊기기 마련. 족보를 넘겨가며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고 한다.

"가정 교육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요. 족보가 대신해 주니까요." 손주들은 조상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행동에 각별히 조심한다.

파평 윤씨의 첫 중시조(中始祖)는 고려 때 여진족을 평정한 윤관이다. 중시조는 쇠퇴한 가문을 중간에 다시 일으킨 조상을 일컫는다.

조상 가운데 누굴 가장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윤 동문은 '소론의 영수' 윤증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평생 용안(임금의 얼굴)을 뵙지 않고 정승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다. '선비의 사표'로 널리 알려진 그는 실학적 경륜을 담은 정치철학을 강조해 존경을 받았다. 명 대신 청과의 실리외교를 주창한 것만 봐도 그의 학문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를 넌지시 물어봤다.

"가까워요. 나이는 어리지만(대학도 후배) 아저씨뻘 됩니다. 아버지대 돌림자가 '석'이 거든요." 윤 동문은 차기 대통령이 윤증을 본받아 실리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뉴욕의 골든클럽 회원 23명이 지난 1월 24일 플로리다를 찾아 현지 동문들과 함께 어울리며 골프를 즐겼다.

뉴욕 '스노버드' 플로리다 '골프 전지훈련'
골든클럽 23명 팜비치에서…동창회 활성화 계기

뉴욕의 스노버드(snowbird) 동문 23명이 지난 1월 24일 플로리다를 찾았다. 이들은 모두 뉴욕 원로들의 친목모임인 '골든클럽' 회원들이다. '스노버드'는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나는 시니어들을 일컫는 슬랭이다.

플로리다 동창회에선 10명이 합류, 모두 33명의 동문들이 팜비치에서 1주일 동안 골프를 함께 치며 우의를 다졌다.

두 동창회의 골프 친목대회는 지난해 팬데믹이 악화돼 한해를 건너뛰어 2년만에 열린 것이다.

이 행사의 간사 역할을 하며 가장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는 계동휘 동문(치대 67)이다. 부부는 행사 내내 점심배달을 하는 등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행사 첫날은 항공편이 차질을 빚어 환영회가 다음날 첫 라운딩 이후로 미뤄졌다. 1,300여 마일을 종단해 오신 분들인데 아쉽게 됐다. 그러나 오미크론을 뚫고 무사히 도착한 것만도 다행이었다.

3일 째 되는 날은 기상이 악화돼 마음을 조렸다. 예약된 팜비치 내셔널 코스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아까운 하루를 날씨 때문에 통째 날리게 될 상황이었다. 이 지역 명소인 듄 데크 카페에서 파도치는 바다를 창넘어 바라보며 브런치로 시간을 보내야 할 참이었다.

그러나 기상은 우리 편이었다. 오후가 되자 비구름이 거짓말같이 팜비치 지역을 벗어나 대서양 한복판으로 빠졌다. 덕분에 이날 풀 라운딩을 즐길 수 있었다.

우드몬트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마지막 날 게임은 플로리다 쪽 여성 골퍼들까지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뉴욕의 '스노버드' 방문은 플로리다 동창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플로리다 동문들은 워낙 넓게 분포해 살고 있어 구심점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동창회도 발족된지 얼마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의 '스노버드'가 겨울철만 되면 찾아와 플로리다 동창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다. 플로리다 지역 특성상 겨울철 거주 동문은 회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윤기향 초대회장을 비롯해 조동건 2대회장, 정치영 3대회장, 김중권 종신이사 등의 도움으로 행사를 성공리에 치룰 수 있었다.

손경택, 성기로, 배상규, 권정덕, 홍선경 동문은 5일 내내 쉬지 않고 라운딩을 하는 등 노익장을 과시했다. 금영천 뉴욕회장은 서울대 로고를 새긴 모자와 핀을 보내주는 등 뜨거운 동창애를 보여줬다.

취재=최희덕(플로리다 동창회장)

명복을 빕니다

김수근(법대 52)

지난 2월 7일 노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89세.

한국에서 오래동안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김 동문은 지난 1991년 이민왔다.

장례식은 팬데믹으로 인해 LA인근의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미망인 김기탁 여사(음대 53)와의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디아스포라 아티스트' 최일단 동문
아시아위크뉴욕 특별전 … 치열한 예술세계 담아

최일단 동문(미대 56)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가 4월 30일까지 뉴욕문화원 주관으로 열린다. 'Elain Ildan Choi, Here and Now'로 명명된 이번 전시회는 2022년 아시아위크뉴욕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특별 기획됐다.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작업 중인 최일단 동문. 아시아위크뉴욕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온라인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다.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에 오픈된 전시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온라인 특별전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 세계 현대미술의 최전선인 파리와 뉴욕에서의 삶 등 표적인 디아스포라 한인 아티스트다.

지난 1991년에는 중국의 고대 유적지를 탐방하고 기록한 기행문 '최일단 발바닥 문화예술기행 정, 중, 동' 세권을 펴냈다. 책에는 2,000여 장의 사진과 200여 점의 드로잉이 수록돼 있다.

최 동문의 전시는 유튜브에서 'Elaine Ildan Choi, Here and Now'를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최 동문의 파란만장한 삶과 치열한 예술세계를 녹여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자화상과도 같은 작업실이자 생활공간인 맨해튼 아파트가 최초 공개된다. 회화, 조각, 텍스타일, 도예, 설치미술 등의 장르를 넘나드는 최 동문의 작품세계와 자유분방한 정신세계를 밀도있게 담아냈다.

최 동문은 1972년부터 3년간 프랑스 파리의 고암 이응노 화백의 문하에서 동양화를 공부해 고암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 인정받고 있다.

1975년 뉴욕으로 이주한 최 동문은 지금까지 이곳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대

취재=허유선(편집위원)

알래스카 윤제중 동문
"한울림 공연 준비에 바빠요"

윤제중 동문(농대 55 · 사진)은 거의 40년 째 알래스카에 살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동문 숫자가 20여 명이나 됐는데 지금은 타주로 떠나거나 타계해 2명으로 쪼그라 들었다. 그래서 단짝 친구는 장건유 동문(미대 58) 뿐이다.

그래도 윤 동문은 올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한울림 합창단을 이끌고 알래스카 주요 지역을 순회공연하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LA 원정공연도 해볼 참이다.

한울림 단원은 모두 20명. 2019년 창단됐는데 2020년 공연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 탓이다.

알래스카 토박이나 다름없는 윤 동문은 이민사도 집필해 후대에 남길 계획이다.

"알래스카는 '육지 속의 섬'이라고 하지요.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자원이 많아 미래는 밝아요.

동문들이 방문해 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취재=홍선례(문화 · 광고국장)

장희순 캐나다 밴쿠버 회장
“열려 있는 동창회 만들겠어요”
고민 함께 나누는 공동체 … 행사 다양화

“그동안 취소됐거나 연기됐던 프로그램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희순 캐나다 밴쿠버 동창회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비대면에 치중했던 동창회 활동을 대면행사로 바꿔 단합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여름 야유회를 비롯해 원로선배 초청 추석 대잔치, 학번별 소모임 개최 등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한편 더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학술발표 등 행사를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특히 ‘열려있는’ 동창회를 강조했다. 경조사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서울대를 두번 다녔다. 간호대(73 학번)를 졸업하고는 사회과학대에 학사 편입, 임상 및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다.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까지 땄다. ‘열려있는’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이처럼 장 동문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을 터다.

주류사회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어서 지난 2005년에는 버나비 시 교육위원에 당선되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 ‘바람’을 일으켰다.

로컬 신문에 거의 10년이나 연재된 장 동문의 교육칼럼은 한인사회에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특히 다문화와 관련한 커뮤니티 포럼을 거의 매년 열어 인종차별 등 소수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예방에도 힘을 쓰고 있다.

요즘은 증오범죄 피해자 사례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인종차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장 동문은 원로들의 ‘복지’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선배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줌미팅을 개설, 매주 수요일 비대면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갇혀있던 동창회가 활짝 열려 희망을 얘기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에도 활기가 넘쳐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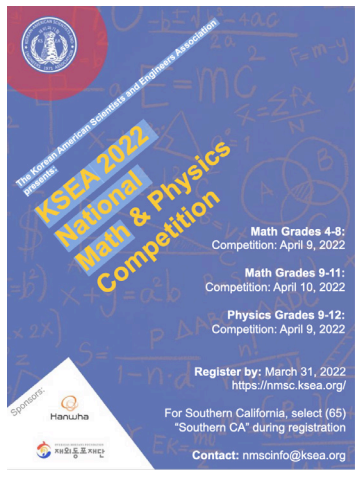
재미과기협 주관
전국수학 · 물리경시대회
4월 9~10일 온라인 개최

전국수학 및 물리경시대회가 오는 4월 9~10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 회장 박병규)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올해가 21회째다.

수학의 경우 4~8학년은 4월 9일, 9~11학년은 4월 10일 각각 진행된다. 물리과목은 9~12학년 대상으로 4월 9일 열린다. 시간은 지역별 등록시 확인할 수 있다.

수학경시대회 문제는 필답고사로 객관식 20개와 주관식 5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에세이 평가 등을 통해 6 월에 있을 Hanwha Mathematics Olympiad에 참여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고교생 대상 물리 경시대회는 객관식 12개 문항으로 치러진다.

주최 측은 서울대 동문 자녀들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다.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등록(https://nmsc.ksea.org)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문의:nmscinfo@ksea.org

뉴잉글랜드 동창회 장학생 모집
11학년~대학원 재학생, 1인당 2~3천 달러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유경)가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1, 12학년으로 학업성적과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들이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 1.5세나 2세 및 입양자로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유경 회장은 “현재의 도전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취지”라며 “선정된 학생들에게 서울대 동문들이 멘토링을 해줘 학업성취는 물론 미래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규모는 1인당 2,000 ~ 3,000 달러. 신청서류는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n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마감은 5월 1일까지다.

문의: snuaane@gmail.com

(수신: 장학위원회)

취재=이경애(인문대 73)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CHOLARSHIP

미국내 대학 Undergraduate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멘토링도 제공

마 감 2022년 3월 31일 발 표 2022년 4월 30일
서 류 이력서와 성적증명서, 에세이 등은 별도로 Upload
신 청 www.snuaa.org〉services〉scholarship
문 의 scholarship@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가 한인사회는 물론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SNUAA Undergraduate Scholarship)은 1인당 $10,000, 모두 10명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혜대상은 서울대 출신이나 서울대 동문자녀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한인 커뮤니티에 오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매년 10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서울대 출신 동문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며 잠재력을 개발할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NUAA USA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13) 908-5586 •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Fun City’ 라스베가스
심심할 겨를 없어… 동문 독자들만 20여 명 거주
“하늘 맑아 매일밤 북두칠성 볼 수 있는 곳”

“이곳에 오시면 아주 오래된 중고차를 갖고 있더라도 스모그 테스트 할 필요없어요.” 허영훈(약대 64) · 김영선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인근의 파럼프(Pahrump)라는 작은 타운이다.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불편함이 1도 없다. 캘리포니아(유카이카)에서 이곳으로 은퇴한 이유가 궁금해 물었다. 맨먼저 꼽은 것이 바로 ‘스모그 테스트’다.

매연은커녕 공해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이 없으니 정부가 스모그 테스트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기가 깨끗하다고 할까.

“밤에 하늘을 쳐다 보면 별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아요. 날마다 북두칠성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런 곳인데 스모그 테스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년 300일 가량 햇볕 내려쬐
‘후버댐’ 덕분에 물 · 전기값 저렴
4월 8~9, 15~16일 BTS 콘서트

▲55+ 단지내의 골프장. 범죄가 거의 없어 시니어들이 맘 편히 지낼 수 있다. 사진은 27홀짜리 블랙마운튼 골프 챔피언십 코스.

◀ 오는 4월 8~9일, 15~16일엔 라스베가스의 얼리지언트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보이 밴드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가 열린다.

1년 365일 가운데 최소 300일은 햇볕이 내려 쬐인다. 이같은 기후조건을 갖춘 곳은 라스베가스가 유일하다.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 가운데 5번 째로 꼽힐만큼 시니어들에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공항 접근성도 LA보다 훨씬 수월한 편이지요.” 특히 라스베가스-인천공항 직항노선이 개설돼 있어 언제라도 고국방문이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 이전엔 국적기가 주 2편 취항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 상황이 호전되면 인천행 하늘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창회보 독자 분포(2월호 참조)를 살펴 보면 네바다주에는 20여 명의 동문들이 살고 있다. 비독자를 포함하면 이 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거의 모두 라스베가스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50~60년대 학번의 동문들이다. 타주에서 이곳으로 은퇴했다고 추정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라스베가스 거주 최고참은 이관(공대 55) · 김희자(간호대 64) 동문 부부. 16년 전 LA인근 아케디아에서 이곳으로 이주,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다.

“라스베가스로 은퇴한 걸 늘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이처럼 부부는 라스베가스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

“아침 산책을 나갈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와요.” 김 동문은 맑은 공기를 맘껏 마셔가며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를 라스베가스로 이사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다.

좋은 점 하나만 꼽아달라는 질문에 부부는 서슴지 않고 ‘안전’이라고 말했다. 범죄가 거의 없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라스베가스 외곽의 선시티 앤섬. 55+ 커뮤니티다. 밀리언 달러짜리에서부터 20~30만 달러 등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또다른 장점은 날씨. 한여름엔 100도가 넘어 용광로 더위라고 하지만 사막기후여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류마티스 등으로 고생하는 시니어들에겐 되레 이런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건강에 좋다.

사막이어서 물값, 전기값이 비쌀 것으로 짐작하지만 김 동문에 따르면 오히려 반대다. 인근에 ‘후버댐’이 있기 때문이다. 라스베가스에 골프장이 흔한 이유이기도 하다.

라스베가스는 한인들이 살기에도 최적화돼 있다. 대형 한국 그로서리 마켓도 두개나 된다. 최근엔 떡집까지 생겨 한인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라스베가스를 일컬어 예전엔 ‘sin city’라고 비아냥댔지만 ‘fun city’가 된지 이미 오래다. 엔터테인먼트와 각종 컨벤션, 샤핑 등 볼거리가 워낙 많아 심심해할 겨를이 없다. 더구나 그랜드 캐년 등 유명 국립공원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 아무때나 맘만 먹으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뭐니뭐니해도 라스베가스의 시그니처 건물은 얼리지언트 스타디움(Allegiant Stadium)이다. 무려 20억 달러를 들여 지은 이 스타디움은 프로풋볼(NFL)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홈구장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게 지은 경기장이다.

오는 4월 8~9일과 15~16일에는 얼리지언트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국보급 밴드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스케줄이 잡혀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한 뒤 공연을 하게 돼있어 전국에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5년 전에는 프로아이스하키(NHL) 베가스 골든 나이츠가 라스베가스에 둥지를 틀었다.

이처럼 프로스포츠 구단이 들어섰다는 건 라스베가스가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빅토빌(캘리포니아)-라스베가스 초고속 전철 프로젝트도 올해 안으로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완공될 경우 라스베가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날씨 좋고, 집값 싸고, 안전하고, 복잡하지 않고, 세금 적고(네바다는 소셜시큐리티와 퇴직연금에도 비과세) ….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 “동창회가 없어요. 누군가 나서서 만들면 여기 사는 재미가 더 쏠쏠할텐데요.” 김희자 동문의 푸념이다.

‘KS 마크’ 심마니 장기남 동문
40년 경력… 산삼 1 천여 뿌리 캐 ‘유명세’
한번도 판적 없고 동문이나 이웃에 나눠줘

장기남 동문은 심마니 경력 40년 차의 베테랑이다. 매년 9월이면 어김없이 산행을 간다.

장기남 동문(문리대 64)은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이른바 ‘KS 마크’ 심마니로 통하는 유명인사다. 산삼 채취 경력이 40년을 넘는 베테랑이다.

매년 9월이 가까워오면 산을 탈 채비에 바쁘다. 테네시주의 스모키 마운틴, 위스콘신의 그린베이 등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2박은 걸리는 코스여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리노이주의 실버스프링, 매티손 등은 새벽에 출발하면 당일치기도 가능하다.

미국서 산삼은 아무때나 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9월 첫번째 토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꼭 두 달 동안이다. 산삼은 국제멸종위기 식물이어서 보호가 필요하고 또 11월 부터는 사냥시즌이 시작돼 안전을 우려해서다. 채취, 판매 모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산삼은 한국과 미국, 어느쪽이 더 약효가 뛰어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한국서는 미국 산삼을 도라지보다 못한 ‘산나물’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내 경험으론 미국산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장 동문은 자신이 이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산삼 덕분이라고 했다.

장 동문의 주장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지 인터넷을 뒤져봤다. 미국식물위원회(ABC)가 연구 발표한 자료가 나왔다. 미국 산삼(wild ginseng)은 사포닌(saponin) 함유량이 1.1%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산은 0.59%. 미국산이 두배 가량 많았다.

사포닌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다. 그래서 항암,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효로만 봐도 미국산이 한국산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산삼은 한뿌리만 먹어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할 만큼 한국인들에겐 귀한 약재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산삼의 효능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오장육부를 보호하며 눈을 밝게 하고 정신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기가 약한 사람을 치료하며 ….’

장 동문이 심마니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교회에서 만난 친구 덕분이다. 친구따라 강남 간 것이 아니라 위스콘신으로 가 산삼에 눈을 떴다. “그때 이후 거의 매년 갔어요. 산삼 서식처는 안 가본데가 없을 정도였지요.”

시즌은 9~10월 꼭 두달, 라이선스 필요
사포닌 듬뿍 함유, 항암 · 면역 효과 높아
문화회관 건립에 종잣돈 10만불 쾌척

▲ 장 동문이 지금까지 캔 산삼은 1,000여 뿌리. 80~100년 근도 있다.

◀ 초록잎 사이에 열린 빨간 열매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심마니 생활하면서 얼마를 벌었느냐고 물었다. “돈은 무슨….” 장 동문은 손사래를 쳤다. “단 한 뿌리도 판 적이 없어요. 몸이 불편하신 동문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물론 우리 부부도 먹고….” 그러면서 아침 공복에 5분 넘게 씹어 먹어야 사포닌을 듬뿍 섭취할 수 있다고 팁을 줬다.

늦가을이 되면 산삼을 캘 수 없다. 잎이 다 떨어져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몇해 전 작은 산삼 20여 뿌리를 집 뒤 야산에 심어놨는데 말기암인 한 지인이 산삼을 먹고 싶다고 해 30~50년 근을 모두 캐드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너무 늦어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 분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깝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장 동문이 지금까지 캔 산삼은 80~100년근을 포함해 1,000여 뿌리나 된다. 값으로 치자면 15만 달러는 족히 될 것 같다며 싱긋 웃어보였다. 산삼을 장기 복용해서인지 완전 동안이다.

장 동문의 심마니 소문은 한국에까지 알려져 산삼 채취기간이 다가오면 비행기 타고 시카고까지 원정오는 극성 손님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고교 · 대학 동문들이다. 유명 정치인을 비롯해 연예인들도 적지 않은데 모두 장 동문의 심마니 친구들이다.

장 동문에 따르면 미국의 산삼은 동부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애팔래치아 산맥 주변에서 자생한다. 이 지역은 산삼이 자라기에 최적의 땅이라는 것. 비옥한 토양과 자연환경 때문에 사포닌 등 미네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산삼은 부엽토(활엽수 낙엽과 나무들이 쓰러져 썩은 흙)가 많고 계곡에 물이 흐르며 북향이나 서향 등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서 채취한 산삼은 연 6만4,000 파운드 가량. 이 가운데 95%가 홍콩으로 수출돼 중국으로 팔려간다. 미국은 말하자면 ‘산삼 대국’인 것이다.

산삼 채취는 위험도 따른다. 깊은 계곡이어서 늑대 등 야생동물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한번은 큰 숫사슴 한 마리가 곰의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것을 발견, 무서운 나머지 줄행랑을 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장 동문은 산삼 기부 뿐 아니라 현금 기부에도 통이 크다. 지난 2004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선뜻 10만 달러를 종잣돈으로 내놨다. 200만 달러를 모금한 장 동문은 2010년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건립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강창만 동문(의대 58) · 김영희 박사 부부의 도움(70만 달러)이 컸다.

문화회관 건립에도 장 동문의 산삼이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했다. 거액 기부자들에게 산삼을 사은품으로 건넨 것. 프로골프(PGA) 최경주 선수도 회관 건립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장 동문 이후 역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회장은 모두 서울대 동문들이 맡고 있다.

우스개로 ‘서울대 동창회=한인문화회관 회장’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고 할까.

장 동문은 요즘 부인 외조 하랴, 문화회관 일하랴 늘 바쁘다. 올해부터 서울대 동창회장을 맡게 된 부인 김승주 여사(간호대 69) 역시 동문이다.

“우리 부부는 매년 꼭 산삼을 먹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면역력 · 체력 증진에 산삼보다 좋은 것은 없지요.” 장 동문의 산삼예찬은 끝이 없다.

14세기 흑사병을 겪은 인간의 변화
코로나와 흡사한 모습에 놀라 … 의학발전에 큰 영향

김정현
공대 68

서재 구석에 수북히 쌓여있는 'Smithsonian' 잡지들을 최근에 읽고 있다. 그 중 1990년 2월호에 실린 'How a mysterious disease laid low Europe's masses'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끈다. 하버드 출신의 Charles L. Mee Jr.라는 분이 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지구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 질병과 인간들의 반응 등이 1300년대 유럽을 휩쓴 흑사병(Black Death)을 겪는 인간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지 놀랍다.

그렇다면 이 질병이 지나고 난 후 바뀌어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유추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질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1345년 쯤부터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계산도 안되는 심각한 역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다가 1347년 이탈리아 메시나 항에 도착한 화물선에 숨어 들어온 검은 쥐 한마리에 붙어살던 벼룩이 가지고 있던 Yerunia pestis bactilli라는 박테리아로 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유력한 추정이다. 지금의 코비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설과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의료시스템 붕괴

벼룩(Xenopsylla cheopis)에게 물린 검은 색 반점(pustule)들이 점점 커지면서 혈관과 임파선을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두통, 피로감, 심한 통증, 혀에 백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부정맥, 중얼중얼 헛소리, 혼동과 무기력증,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신경마비 등의 증세를 보이다 보통은 3, 4일, 빠르면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만에도 몸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죽게 되는 병이었다. 쥐벼룩 때문이라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퍼져나가는 이 질병에 인간은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다.

상점들은 문을 닫고 공장들도 문을 닫고 모두 봉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제들은 장례식을 집전하지 않았다. 장례식을 집전한 사제가 이튿날 죽기도 했다. 환자를 왕진한 의사도 그렇게 죽어갔다. 환자가 있는 집은 밖에서 봉쇄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 죽든 굶어 죽든 죽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의 의학지식으로는 이 질병에 대해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어 황당할 뿐이었고, 심지어 의사들이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말았다.

온갖 설과 처방 '난무'

사람들은 이 역병의 원인을 나름대로 해석했다. 공기 오염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첫째 이유였다. 어떤이들은 비에 섞여 내린 개구리, 두꺼비, 뱀들이 옮겨온 것이라 했고, 어떤 의사들은 늙은 여인에 대한 욕정때문이라고도 했다.

교황과 프랑스 국왕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의과대학을 가진 파리대학에 도움을 요청했다. 돌아 온 대답은 '1345년 3월 20일 오후 1시에 토성과 목성과 화성이 일렬로 자리 잡으며 지구 대기의 균형을 망가뜨린 결과'라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먼저 나선 것이 종교다. 교회는 이 질병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며 각자의 몸을 아침 저녁으로 채찍질하며 회개하기를 권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를 믿고 대로에 나가 채찍질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행진하는 무리에 동참했지만 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유럽인구의 3분의 1 사망

온갖 처방이 만개했다. 오염된 공기가 몸에 닿으면 안되니까 목욕을 하면 안된다는 이론, 그러나 얼굴과 발은 장미물과 식초로 씻어야 한다. 누군가가 양상추를 먹으라고 하니, 파리 의과대학 어느 교수는 안된다고 하고, 계란은 익혀 먹으면 안된다, 고기는 끓이면 안되고 구워 먹어야 한다, 디저트도 안된다, 낮잠도 자면 안된다. 운동도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공기가 몸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람과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사람 등, 온갖 썰과 민간처방이 난무했다.

1348년 가을, 역병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희망도 잠깐, 이듬해 봄에 다시 폭발하고 1349년에는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다.

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나? 누구는 걸렸다가 회복이 되고, 누구는 3~4일 후에 죽고 누구는 급사하는가? 환자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걸리나? 대답이 없으니 공포는 더 심했다. 지금의 코로나 양상과 흡사하지 않은가?

짐승들을 의심하고 개나 고양이 등을 죽였지만 쥐는 죽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벼룩은 일상에서 워낙 흔한 거라 의심하지 않았다. 무덤 파는 사람들이나, 타지인들, 집시, 술취한 자들, 거지, 절뚝바리, 문둥병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다. 1348년 봄, 제네바 호수 근처에서 우물물을 오염시켰다며 일단의 유대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때로는 건물 속에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산채로 불을 질러 죽였다.

그 겨울 스트라스버그에서는 16,000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갔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역병으로 박테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breakdown 이 문제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정말 끝이 났구나 하는 데 1361년에 다시 창궐하고 1369년에 또 다시 번지고. 14세기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끝나긴 했는데, 왜 끝나게 된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1351년 교황청 조사에 의하면 2,400만 명이 죽었고 14세기 말까지 2,000만 명이 더 죽은 것으로 알려져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가? 달라졌다. 이 흑사병이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가치관에도 변화

아이러니컬하지만 한가지 예로 이 역병이 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의학의 무참한 참패. 대다수의 의사들이 죽고 도망쳐서 의사들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현실로 많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라틴어로 되어있던 의학교과서들이 다른 언어로 쓰여지게 되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할 농부들이 태부족하게 되고 지주들의 압제력이 쇠퇴했다. 임금이 오르고 사람들이 부를 가지게 되어 구매력을 높이게 되고 이는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었다.

종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앙과 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15면에 계속〉

‘스카이프’로 만나는 행복
팬데믹에 지친 동기생들과 매주 소통

이덕숭
의대 54

1960년 졸업한 의대 14회는 총 140명으로 국내에 72명 남았고 나머지 68명이 해외로 나왔다. 졸업한지 거의 62년이 된 현재, 국내에서는 38명이 타계했고 생존율이 비교적 양호한 해외 68명 중에서도 28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하고 있는 해외 동기생은 40명이고 국내외 합쳐봤자 74명에 불과하다. 벌써 거의 절반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지치고 허전했던 삶이 컴퓨터가 제공해 주는 스카이프(Skype) 만남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게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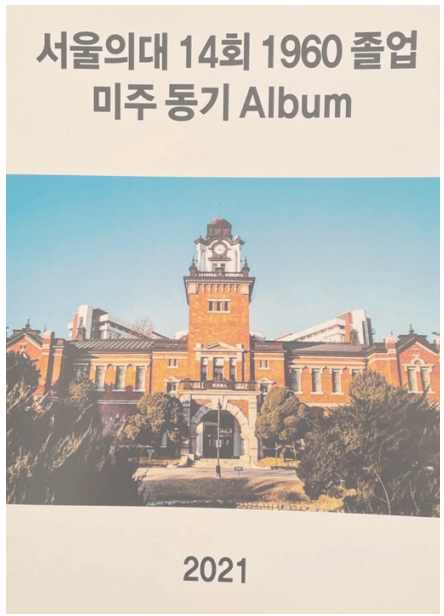
1935년생이 대부분인 우리 동기들,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국식으로 나이 한 살 더 먹게 되니 86세의 고령이 됐다. 그러나 마음만은 이팔청춘이요 100세 시대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나름 힘쓰고 있다.

건강식품 복용은 물론이거니와 적절한 운동으로 걷기와 골프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생활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연륜이 더해지면서 찾아온 만성질환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으로 병원문을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지만 매주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와 격려로 그 아픔과 고통을 반감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흩어져 살고 있는 14회 동기생 아홉명은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스카이프를 통해 만나게 되는데 각 지역의 시간차를 고려해서 미 동부에서는 오후 4시, 그리고 서부는 오후 1시가 된다.

스카이프에서 만나는 동기생들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전희근(엘킨스 파크, 펜실베이니아), 이효빈(포트 리, 뉴저지), 전용주(야머스, 캐나다), 임필순(레이크랜드, 플로리다), 이종석(애틀랜타, 조지아), 임종원(둘루스, 조지아), 최홍락(뷰포드, 조지아), 이상일(워런, 미시간), 그리고 필자 이덕숭(버뱅크, 캘리포니아)이다.



미주 동기생들이 만든 사진첩.

우리는 지난해 2월 초부터 만나고 있는데 대면하는 시간은 1시간 가량이다. 요즘 돌아가고 있는 세상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곧 옛날 학창시절로 화제가 이어진다.

추억 속에 담겨 있던 비밀 보따리의 끈을 하나 둘씩 풀면서 박장대소하곤 한다.

때로는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여정에 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하는데 이때는 모두 숙연해진다.

몇주 전 모임에서 전희근 동기가 ‘미주동기앨범’을 만들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전원 찬성표를 던져 추억의 사진들이 담긴 36쪽의 앨범이 출간 배부되었고 한국에 있는 동기들에게도 보냈다.

앨범 제작비용은 이종석 동기회장이 선뜻 부담했고 사진들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모든 일은 전희근 총무가 맡아 수고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웠던 동기들과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지나온 세월 속으로 되돌아가 그 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겨 본다.

앞으로 남은 세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스카이프 시간이 자꾸만 기다려진다.

사람들은 동요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나 보헤미아의 존 허스 등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방식과 교리에 도전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섰다.

한편 목숨이 보잘 것 없다는 걸 경험한 인간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지고 반사적으로 신앙운동의 불이 붙어 결국 15세기 이후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간 각자의 생명과 웰빙이라는 생각은 이어서 일어나는 르네상스 문예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봉건주의를 버티고 있던 세가지 힘 - 종교, 귀족 그리고 농민들의 봉건 계급질서가 무너지며 부르주아 중산계급의 대두와 함께 결국엔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서양 역사의 변환점을 가져온 흑사병이 이 모든 역사의 시발점이다.

작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역병으로 지구 모든 곳에서 우리 생에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생관과 종교관과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발달한 의학 덕분에 코비드라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도 알았고, 백신도 재빨리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후에 어떤 변종이 있을 지 예측도 못하는 세상이다. 코로나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도 미진하다.

작년 9월호 뉴잉글랜드 메디컬 저널에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백신접종 한 달 후 5월에 필자가 걸린 맹장염과 수술 도중 진단받은 심방세동도 백신 부작용 때문이란다.

한국거주 필자의 처남도 얼마전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백신 부작용이라고 한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과 천국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병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더 좋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말이다. 흑사병이나 코로나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영생 말이다.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조각가 김현정 동문 '마운트 버논'을 가다
'건국 대통령' 워싱턴의 고향이자 민주주의의 성지
지붕위 올리브잎 문 금색 비둘기는 평화를 염원

김현정
미대 94

워싱턴 DC에는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1732~1799)의 이름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수도 이름으로 워싱턴이 쓰인 것은 물론이며 DC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워싱턴 모뉴먼트'와 유명 대학 중 하나인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그리고 포토맥강 주변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조지 워싱턴 기념 파크웨이 등 그를 기념하는 것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DC에서 포토맥강을 따라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를 타고 남쪽으로 15마일 가량 가면 워싱턴이 22세부터 67세를 일기로 타계하기까지 거주했던 '마운트 버논(Mount Vernon)'을 방문할 수 있다.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인 미국의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에는 마운트 버논 입장이 무료다.

마운트 버논은 워싱턴과 그의 가족이 거의 45년간 거주해 사실상 그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현재는 버지니아 포토맥 강가에 500에이커 농장에 그의 저택과 부대시설이 함께 보존되어 있다.

강가가 내려다보이는 절경의 이 저택은 워싱턴이 1754년 미망인이 된 그의 형수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처음에는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워싱턴 부부가 살았던 마운트 버논의 저택. 처음에는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으나 워싱턴이 두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해 맨션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마운트 버논은 미국 민주주의 상징처럼 알려져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이후 1758년과 1775년 두 차례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로 워싱턴의 취향을 반영한 넓은 맨션으로 재탄생했다.

이중 특별히 포토맥강을 바라보고 있는 저택의 동쪽 면에 기둥이 많은 넓은 공간(Piazza and Colonnades)을 만들었는데 워싱턴 부부는 이곳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지금은 일직선으로 나무 의자를 쭉 놓아 방문객들이 앉아 포토맥강을 내려다보며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저택은 붉은 지붕의 이층건물로 한가운데는 올리브 잎을 문 금색 비둘기 모양의 바람개비가 장식돼 있다. 이는 평화를 염원한 워싱턴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마운트 버논을 일컬어 미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없지 싶다.

저택의 양 옆으로는 하인들이 머무는 공간과 부엌이 연결돼 있다.

또한 농장 곳곳에 대장간, 방앗간, 세탁소, 직조소, 증류소, 소금창고 등의 작은 건물들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정원을 비롯, 텃밭과 작은 과수원, 그리고 축사 등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규모의 저택과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운트 버논에는 워싱턴과 그의 부인 마사의 무덤이 있다. 시신은 사후 이장된 것으로 앞쪽 대리석의 관 안에 부부가 안치돼 있고 뒤쪽에는 25명의 후손들이 가족묘 형태로 묻혀있다.

노예들의 '미완의 삶' 조형물 눈길
'사랑 · 소망 · 믿음'의 성경 말씀에 의지
무덤도 없어… 역사를 성찰해야

노예들이 묻혀있는 마운트 버논의 공동묘지.

워싱턴의 묘를 지나 포토맥강 쪽으로 내려가면 또다른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 마운트 버논에서 일했던 노예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안내표지를 보고 찾아간 그곳은 숲이 우거진 가운데 윗부분이 어슷하게 잘린 원통형의 조각이 있는 기념관이었다.

이곳은 1929년 마운트 버논 여성연합(The Mount Vernon Ladies' Association)이 세운 작은 기념관이었으나 1983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축된 것이다. 하워드 대학교의 건축학도들이 디자인한 이 기념관은 작은 원형의 광장에 예전 노예들이 의지해 살았던 '사랑 · 소망 · 믿음'의 성경말씀을 돌에 새기고, '미완성된 삶(life unfinished)'을 상징하는 회색의 잘린 화강암 기둥을 중앙에 배치했다.

담담히 이 조형물을 보고 돌아서는데 나는 기념관을 둘러싸고 있는 숲속 여기저기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꽃다발을 발견했다. 앗! 이건 뭐지?

나는 꽃다발을 중심으로 땅 위에 실로 표시된 직사격형을 발견했다. 순간 이 직사각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그 옆을 둘러봤다. 그 옆에 또 그 옆에 저쪽 언덕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꽃다발과 실 직사각형이 보였다.

이곳에는 마운트 버논에서 노예의 삶을 마친 이들이 묻혀있다. 그래서인지 어떤 작은 비석이나 봉분도 발견할 수 없다. 그저 평평한 땅 밑에 묻혀있다고 할까. 구전에 의하면 이 언덕에는 100~150여 명의 노예들이 매장돼있다. 이들은 다리가 동쪽 강가를 향하도록 묻혔는데 이는 아프리카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이루지 못한 희망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워싱턴은 11세 때 아버지로부터 10명의 노예를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운트 버논에는 한때 316명의 노예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은 자유가 건국이념인 이 나라에서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도덕적 딜레마를 안고 평생을 고뇌했다. 그는 부인 마사가 세상을 떠난 후엔 '노예들을 모두 풀어주라'는 유언을 남겨 후대에 본이 되기를 바랐다.

마운트 버논의 도널드 레이놀즈 뮤지엄 교육센터(The Donald W. Reynolds Museum and Education Center)에서는 워싱턴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와 함께 '마운트 버논의 노예된 사람들(Enslaved People of Mount Vernon)'이라는 전시가 함께 열리고 있었다. 각기 다른 내용의 두 전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특히 교육센터 측이 노예(slave)를 '노예된 사람들(enslaved people)'로 바꿔 표현한 것에서 인간에 대한 진한 존엄성을 느꼈다.

이 전시는 내가 예전 스미소니언 초상화 갤러리에서 만난 '플로라(Flora)'를 떠올리게 했다. 플로라가 누구인가. 바로 팔려고 내놓은 노예다.

〈17면에 계속〉

Flora, Enslaved Person, 2021, Hyun Jung Kim
필자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다시 제작한 플로라의 초상화. 진주와 금색 프레임 등의 귀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녀의 이름 'FLORA'를 점자의 알파벳 코드를 빌려 실루엣이나 진주목걸이 형태로 수놓았다.

'노예된 사람'의 표현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 느껴

작자 미상의 이 초상화는 플로라의 모습을 어떠한 디테일도 없이 단지 그녀의 실루엣을 누런 종이를 오려 붙여 표현했다.

나는 플로라라는 한 인간을 다루는 거칠고 낮은 태도를 읽으며 충격에 싸였었다.

이같은 태도는 슬프게도 이곳 마운트 버논의 서쪽 언덕에서 낮게 묻힌 그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노예들의 희생과 노고를 추모하는 위령탑.

또한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역사에서도 누군가의 무릎에 짓눌려 질식사한 미네소타의 또다른 조지(George)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나는 이같은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역사 속 과오와 이를 개선하려 했던 수많은 노력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애를 다시 한번 불러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마운트 버논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이.

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창회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는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 300만 달러 모금 캠페인 계정에 별도 적립되고 있어 동창회 운영비용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 후원금으로 도와주시면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내=27면 참조〉

'권력 기피증' 워싱턴
"이제 나는 가네. 조용히 보내 주게나"
도덕정치 구현, 탕평책 펴 혼란 막아

조지 워싱턴은 '권력 기피증'이 있었다.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식민지 군대를 이끌고 세계 최강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주변에선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이에 분노한 워싱턴은 대륙회의(연방의회의 전신)에 군통수권을 반납하고 명예로운 은퇴를 택한다. 처음 약속대로 고향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갔다.

워싱턴은 자신이 꿈꾸는 여생을 이렇게 표현했다. "포도가지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삶의 흐름을 서서히 따라 가려네. 내 선조들 곁에 잠들 때까지."

하지만 국민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워싱턴의 권력기피증은 대통령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또다시 도졌다.

임기를 마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것. 그러자 측근들은 물론 연방의회에서조차 '한번만 더 해달라'며 워싱턴을 붙잡았다. 간청에 못이겨 워싱턴은 "그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4년을 더 권좌에 머물렀다.

'독재자 되란 말이냐' 버럭

두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한 그는 약속대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의회가 '4년만 더' 간청을 했으나 "나보고 독재자가 되란 말이냐" 버럭 화를 내고는 마운트 버논으로 가 여생을 마쳤다.

당초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으로만 명기됐을 뿐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다. 인류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만큼 워싱턴이 선례를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 워싱턴이 두차례 연임을 끝으로 은퇴하자 이것이 관례로 굳어져 후임 대통령들도 8년이상 백악관에 머물지 않았다.

워싱턴의 선례를 깨뜨린 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4차례나 당선됐다. 이에 놀란 미국은 전쟁이 끝나자 헌법을 개정, 두 번 이상은 연임할 수 없게 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퇴장

워싱턴의 퇴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퇴장으로 존경받는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워싱턴이 종신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했으나 그는 장기집권의 폐단을 우려해 미국역사에 길이 남을 고별사를 남기고 미련없이 권좌를 떠났다. 떠나면서 남긴 말도 소박했다.

"이제 나는 가네. 조용히 보내주게나."

워싱턴은 고별사에서 '도덕성은 대중정치의 원천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는 타협과 조정의 달인이었다. 특정세력을 지지하지 않고 정부에 각 세력의 인물들을 고르게 등용하는 등 도덕정치를 구현한 인물이었다. 편가르기가 아닌 탕평정치를 편 것이다. 워싱턴 덕분에 미국은 건국초기 대혼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1799년 그가 사망하자 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워싱턴은 전쟁에서도 1인자였고, 평화에서도 1인자였으며, 국민들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최초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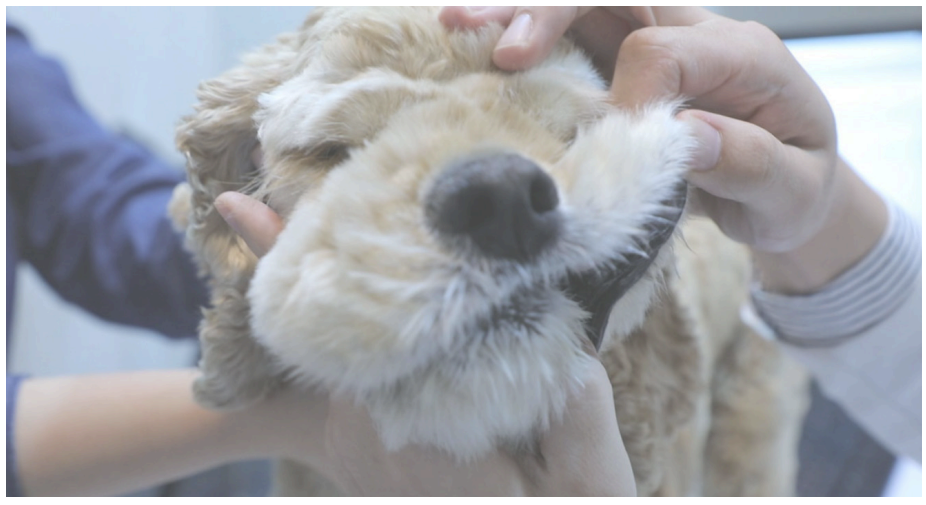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이 수명 더 길어

의료비 무시못해 … 보험가입 적극 권장

응급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반려동물들을 많이 보게된다. 건강을 되찾고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반려동물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질환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치료시기를 훨씬 지나 응급실로 오는 반려동물들을 보고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위해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의사는 평생 보수교육을 받는 신뢰할 만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다.

김영주
수의대 88
웨스턴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반려동물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중성화 수술을 한 애완견의 수명이 더 길다는 보고서도 나와있다.

◀ 순종훈련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수요 늘어나
마이크로칩 이식하면 생명 구해
정기검진 꼭 필요, 위급상황 예방

오늘날 우리는 각종 뉴스와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쉴 새 없이 새로운 내용들이 올라온다.

최근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가운데 50% 이상이 페이스북 동호회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조언을 듣는다. 하지만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공유하는 정보들이라 때로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Pet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다. 응급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반려동물의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심한 경우엔 금전적인 문제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안전한 주변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호기심 많은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가정용품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안전을 위해선 Cage Training도 아주 중요한 훈련중 하나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동물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는 것들도 반려동물에게는 심각한 독이 될 수도 있다. 담당수의사가 추천하는 응급병원이나 ASPCA Animal Poison Control Center(888-426-4435), 또는 ASPCA.org를 클릭하면 독극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번식이 목적이 아니라면 중성화 수술을 권한다. 영어에 능통하면서도 당황하는 분들이 많은데 암컷을 중성화하는 것은 "Spay", 수컷을 중성화할 때는 "Neuter"라고 한다.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론으로는 중성화한 반려동물의 수명이 더 길다고 알려져 있다.

반복적으로 순종 훈련(Obedience Training)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앉아(Sit)", "멈춰(Stay)", 그리고 "그만(Stop)" 등 간단한 지시들을 훈련시키면 위급시엔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 훈련 받은 경찰견들은 독일어로, 덴마크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덴마크어로 지시를 해야한다고 알려졌다.

연락처를 포함한 인식표(ID Tag)를 걸고, 담당수의사와 상의해서 마이크로칩 이식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간단한 표식이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모든 반려동물은 운동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산책을 통해 사람들은 물론 다른 반려동물들과도 어울리고 특히 다양한 장소, 상황 및 소리에 노출되도록 해줘야 한다.

이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면 반려견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화 결여로 인해 문제를 유발하는 반려견들은 결국에는 동물 보호소와 구조 시설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경우 안락사 원인중의 하나가 된다.

반려동물에게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음식을 주도록 한다.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기는 쉽지 않다. 잘 알려진 회사의 제품을 주식으로 제공하고, 간식을 따로 주는 것을 권한다.

상업적으로 제조된 펫 푸드는 완전 음식(complete diet)이나 다름없어 별도로 영양보충제들을 줄 필요가 없다. 직접 요리한 음식을 주고 싶을 때는BalanceIT.com에 가입,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라면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시간과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큰 돈을 쏟아붓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는 꽤 많은 관련 비용이 들어간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라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반려동물수요가 급증했다고 한다. 반려견을 키우면 사람의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최근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는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은 그 자체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본인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삶과 죽음의 그 빛나는 대화

‘죽은 시인의 소사이어티’

우리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전해 들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던 이어령 선생이 지난 2월 26일 우리 곁을 떠난 데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으로 촉망받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도 이틀 후 세상을 떠났다. 이어령 선생은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석양처럼 뜨겁게 살다 가셨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화려한 불꽃과도 같았다. 지난 2년여 동안 암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이면서도 항암치료를 거부한 채 지적 호기심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불꽃을 태우다 생을 마무리하셨다. 김정주 회장은 중천에 밝게 빛나던 태양이 갑자기 개기 일식을 맞은 듯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떠났다.

윤기향
법대 65

두 분의 마지막 가는 길은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죽음을 마주한 우리들의 애잔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다를 바가 없었다.

두 분의 죽음이 오버랩되어 다가온다. 마치 ‘죽은 시인의 소사이어티(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꿈과 현실을 오가는 것 같았다.

오늘을 즐겨라

삶과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라틴어 격언으로 ‘카르페 디엠(carpe diem)’과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가 있다.

카르페 디엠은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라티우스는 “오늘을 잡아라. 내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대만을 걸면서”라는 시구절을 남겼다.

이처럼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잡아라(seize the day)” 또는 “현재를 즐겨라(enjoy the present)”라는 뜻으로 지금 사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영화 ‘죽은 시인의 소사이어티’의 주인공 존 키팅이 이 말을 학생들에게 전한 장면 때문이다.

키팅으로 분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한다. “의학, 법률, 경영, 공학 같은 것들은 고귀한 탐구이며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해. 하지만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야.” 그리고 그는 월트 휘트만의 시 ‘오 나여! 오 생명이여(O Me! O Life!)’를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나서 키팅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라고 말한다. ‘오 나여! 오 생명이여!’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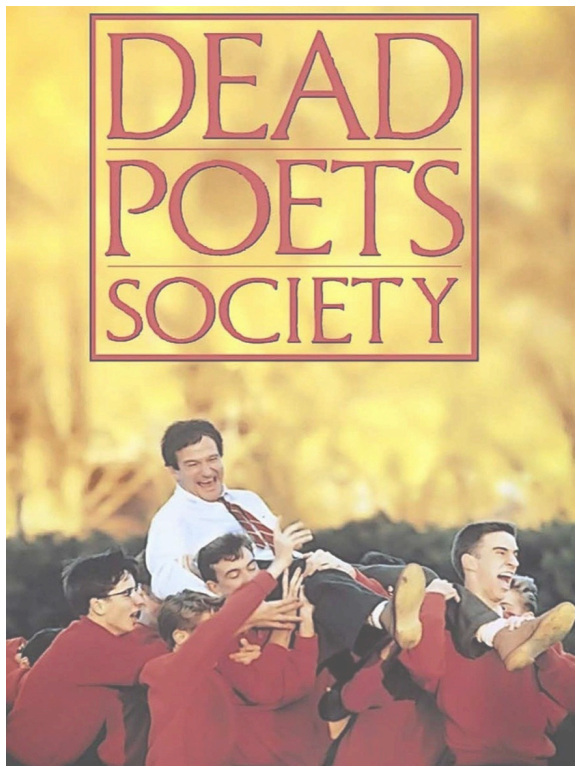
“나의 나머지 삶을
뒤엉키게 만들어 놓는,
공허하고 쓸모없는
남은 세월에 대해서
오 나여! 슬프고 반복되는
이 질문들,
이런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오 나여! 오 생명이여!
“대답은 이것이다.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것,
생명이 존재하고
주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
감동적인 연극은 계속되고
나도 한 편의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나여! 오 생명이여!

그러나 윌리엄스가 2014년 9월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의 ‘감동적인 연극’과 ‘한 편의 시’와 같은 생은 갑자기 막을 내렸다. 명 배우이자 뛰어난 코미디언으로서 항상 웃음을 선사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 나여! 오 생명이여!’를 부르짖으며 망연자실했다. 그는 영화 제목처럼 죽은 시인이 되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곧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도취되어 교만하지 말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겸허하게 살라는 교훈으로 볼 수 있다.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관계
오늘 주어진 삶은 귀한 선물



영화 ‘죽은 시인의 소사이어티’ 포스터. 주인공 키팅 선생역을 맡아 열연한 로빈 윌리엄스는 몇해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스스로 ‘죽은 시인’이 됐다.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는 동전의 앞뒤 같은 관계를 갖는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삶이 선물임을 깨닫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볼 수 있다.

이어령 선생은 ‘죽은 시인의 소사이어티’에서 키팅이 말한 것처럼 평소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를 즐겨 인용하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주 회장은 키팅 선생으로 분한 배우 윌리엄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람처럼 간 인생

무엇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오 나여! 오 생명 이여!’를 들려준 키팅 선생의 마지막 절규를 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두 분 다 바람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같다. 이어령 선생은 약관의 나이에 ‘흙속에 저 바람 속에’(1963)라는 에세이집을 써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김정주 회장은 1994년 ‘바람의 나라’라는 온라인 게임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게임업계의 기린아로 등장했다.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른다. 서정주 시인은 “내 인생은 8할이 바람이었다”고 읊었다. 인생은 결국 ‘일장춘몽’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윤기향 박사는
미네소타,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 교수(경제학)
저서: 시가 있는 경제학
현대거시경제론
증권의 논리
투자의 예술

“병원에서 식물합니다”

신진우
농생 04
하버드 의대 박사 후 연구원

“당신은 의사(Doctor) 인가요?” 병원 근처에서 우버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때마다 의사(MD)가 아닌 박사(PhD)라고 설명해 준다.

필자가 속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의 분자생물학과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 16명의 교수님이 계시지만, 환자를 보는 의사는 4명 뿐이다. 노벨상 수상자도, 미국 의학 한림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 전 IOM) 정회원인 학과장님도 의사 학위(MD)가 없는 박사(PhD)다.

하버드 의대의 주 수련병원인 MGH는 임상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존스홉킨스 병원 등과 함께 매년 전미 종합병원 평가 순위에서 톱5를 차지하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연구의 양과 질 및 연구비 수주 규모를 고려한 연구 역량만 놓고 본다면 가장 뛰어나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새로운 학과 창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과, 복수 학과 소속을 장려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MGH 분자생물학과는 1982년 독일 회사인 Hoechst AG(현 사노피-아벤티스)의 지원으로 창설됐다. 당시 이름조차 생소했던 분자생물학, 병원이라는 환경, 외국 회사의 자본력, 그리고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진 구성원들, 이런 생경한 조합들의 이질감을 포용하고 세워진 학과였기에 어느 누구의 뒤를 밟지 않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선도적인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연구수익을 가져다 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도 본 학과에서 나왔고,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UC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도 본 학과가 배출한 박사 인력이다. 이처럼 MGH 분자생물학과는 생명현상을 심도있게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의학을 발전시키자는 이념 아래, 박테리아, 효모, 예쁜꼬마선충, 쥐,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체를 연구하는 학과이다.

필자는 그래서 식물 연구를 하고 있다. 각종 유전학, 분자생물학 도구를 이용해 식물 줄기세포 유전자 네트워크의 조절 양상을 시공간적 정보를 함유한 수준까지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견된 지식과 원리가 적용되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옥수수에서 이동성 유전인자 ‘트랜스포존’을 발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고 생명과학의 큰 발전을 이루어 낸 식물유전학자 바바라 매클린톡 여사처럼 말이다.

MGH는 내과, 외과 등 전통적인 진료과 외에도 다양한 학과 및 연구 센터들을 창설해 40여 개에 달하는 학과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전공에 따라 학과간 경계를 허물어 복수 소속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필자는 MGH의 분자생물학과 소속이면서 하버드 의대 유전학과 소속이고, 동시에 병원내 계산통합생물학센터(CCIB) 소속이다.

지난달 24일 신설된 모교 자연대 과학학과의 앞날을 응원한다. 컴퓨터 공학과는 발전하는 AI 기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연합전공 인공지능 과정을 신설했다.

이처럼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을 추구하며 학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새로운 학부를 만들거나, 학부 조직이 없는 대학원 및 단과대별 협동과정 전공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교수 소속학과를 허무는 내용을 포괄한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없던 과도 생기는 마당에 있는 과가 변신을 하는 건 그다지 이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동문의 입장에서 내가 졸업한 학과의 이름이 바뀌거나 학제가 개편된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학과의 발전적인 변모를 응원할 때 모교는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걸맞는 동문의 품격은, 다소 생소한 학과의 이름을 가진 후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을까.

〈뉴잉글랜드 동창회 관악회장〉

샘은 강이 되고

장민구
공대 86
편집위원

다음은 필자(애틀랜타 편집위원)가 결혼 25주년을 맞는 날 아침 아내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 편집자.

너울치며 유유히 흐르는
25만리를 흘러왔다
바다를 꿈꾸기도 수줍어
어디로 가는지 말도 못할 때도
흐르고
더 이상 흐를 곳이 없어
‘여기가 끝인가’ 싶었을 때도
결국은 또 흘렀다
그렇게 너른 강이 되었다

시작은 작은 샘이었다
아무 손길도 닿지 않은
처녀림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사이로
잠깐 아침 햇살이 잠을 깨워주는
파릇파릇한 풀밭 그 한 가운데
작지만 깊은 샘
그 샘이 시작이었다

목마른 가뭄을 적시고
꽁꽁 어는 얼음도 녹이며
멈추지 않는 샘물은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작은 내가 되어
처녀림을 뒤로하고
여행을 시작했다

둑을 만나면 방죽을 만들고
산을 만나면 호수를 만들고
대지를 가로 지를 땐
초록에 물을 주어
황금물결을 일으키며
생명의 강이 되었다

강은 멈춤이 없이
바다로 바다로 향하며
작은 강들은
새로운 대지를 찾아
미답의 길들을 열어가며
생명의 물은 세상을 덮어간다

이제는 바다를 꿈꾸지 않아도
저기 바다가 보인다
이제는 시간에 밀리지 않아도
스스로의 무게로 나아간다
아무 것도 막을 수 없고
아무 것도 멈출 수 없다

처녀림 속 수줍던 샘은
굽이굽이 25만리를 지나
너른 강이 되었다

숨은 보물찾기

임경빈
수의대 12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단짝 친구의 이모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대대로 물려받은 고가구와 아름다운 도자기 조각품 등등이 즐비한 집이었다. 집구경에 취해있을 때 내 눈을 사로잡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두 자 정도 크기의 나무 물고기. 방금 물에서 튀어 오른듯한 역동적인 모습의 머리와 꼬리. 세밀하게 조각된 비늘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적으로 신기한 문양을 이루는 모습. 무척이나 인상 깊은 물고기 조각품의 출처를 묻는 나에게 돌아온 이모님의 대답은 실로 놀라웠다. 'Thrift Store(중고물품점)'.

나는 살면서 중고물품과는 늘 거리를 두었다. 지난 2년 동안 예기치 않은 자동차 사고를 두 번이나 당하면서도 고집했던 건 늘 새 차. 옷도 가구도 가전제품도 늘 새것만 사 오던 나였다. 우리 집에서 중고물품은 가족들끼리 우스갯소리로 'Used good'이라고 부르는 셸터에서 입양한 사랑스런 고양이 '튜나' 뿐이었다.

이모님 댁에서 본 나무 물고기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찾은 중고물품점에서 인상 깊은 물건은 없었다. 대부분이 낡은 옷 또는 책. 특별할 거라고는 없는 기본적인 장신구들. 중고물품점의 특성상 고급 장식품을 찾는 것이 쉬운 건 아니다.

실망감을 안고 가게를 나서는 찰나 계산대 뒤의 선반에서 발견한 건 도자기로 만들어진 유니콘. 매끈한 뿔과 안락하게 앉아있는 자태와 더불어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 그렇게 나의 보물찾기 'Treasure Hunting at the Thrift Store'가 시작되었다.

나의 새로운 취미 덕분에 우리 집 거실 장식장에는 아름다운 수집품이 한가득하다. 옥으로 만든 코끼리 한 쌍, 각종 크리스탈 장식품, 폴란드산 도자기 꽃, 양각이 화려한 독일산 그릇….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살면서 종종 예상치 않게 숨은 보물들을 찾을 때가 있다. 미국에 사는 동안 발견한 또 다른 숨겨진 보물은 동창회였다. 페이스북에서 한인 청년 모임을 통해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워싱턴디씨 서울대 동창 모임. 동창회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었던 나였지만 한인들이 가뭄에 콩 나듯 있던 오클라호마에 있다가 디씨지역으로 돌아왔을 땐 한국적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처음 동문들을 만난 건 한 선배님 댁에서의 식사 초대 자리에서였다. 그 선배님은 사람들에게 "한국인은 질투가 많아서 서로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 같다. 그래서 해외에서 같은 한국인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끼리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감동해서 나름 열심히 참여한 동창회를 통해 수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다. 함께 Chesapeake Bay에서 게를 잡고, 테니스를 치고, 회를 먹으러 가고, 송별회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때로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아도 단순히 모여서 즐거움을 다같이 나누려는 사람들. 같은 한국사람, 같은 대학교 출신을 넘어서 서로 아껴주고 또 물심양면 후배들을 이끌어주려고 노력하는 선배님들.

내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 모임에 나가지 않고 미국인들과 주로 어울렸던 건 굳이 한국인하고만 어울려야 하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작용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 편견을 산산조각 낸게 동창회 모임이었다.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선배님들의 모습 그 자체로도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를 졸업하자 미국으로 와서 3년간 일했던 첫 직장인 동물병원에서 올 여름에 퇴사하고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다.

다른 주로 이사하여서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중고물품점에 들르는 것이란 걸 이제 나는 잘 알고 있다. 중고물품점을 샅샅이 둘러보면서 비록 손때는 묻었지만 누군가의 역사가 깃들어있는 가구를 사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좋은 물건을 발견하며 기뻐하겠지. 그다음으로는 지역 동창회를 알아볼 것이다.

새로운 삶의 챕터엔 또 다른 어떤 숨겨진 보물이 있을지 벌써 설렌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대통령 vs. 프레지던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의 원년을 1984년으로 잡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로널드 레이건이 재선에 나선 해다. 그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레이건의 상대 민주당 후보는 월터 먼데일. 카터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내 지명도도 꽤 높았다. 처음엔 쉽게 봤는데 만만치 않았다. 먼데일은 당시 극을 향해 치닫던 동서냉전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선제공격을 폈다. 표심이 먼데일 쪽으로 흔들리는 듯 싶었다.

때맞춰 레이건 캠프가 회심의 카드를 내놨다. '더 베어(The Bear)' 캠페인 광고다. 오프닝 멘트가 퍽 인상적이다. "숲속에 곰이 한 마리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쉽게 띄지만 다른 사람에겐 잘 보이지 않는군요."

곰은 캘리포니아의 상징인 그리즐리 베어. 내레이터의 묵직한 톤이 흐른다. "곰을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아주 위험한 동물이어서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이어 한 남자가 등장하자 무서운 듯 뒷걸음질 치는 곰. 레이건의 사진이 화면을 꽉 채우며 자막이 나온다. "레이건, 평화를 위해 준비된 대통령."

곰이 러시아를 의미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 협상을 벌여 소련을 길들이겠다는 먼데일의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곰은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숲속의 포식자. 자칫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대화를 하겠다니.

광고의 키워드는 '힘을 통한 평화'다. 강하고 위대한 미국만이 평화를 담보해 준다는 레이건의 설득에 먼데일의 유화론은 동력을 잃고 곧 잊혀졌다. 그해 대선 스코어는 49대 1. 레이건은 50개 주 가운데 먼데일의 고향인 미네소타만 뺏겼을 뿐 압승을 거뒀다.

레이건의 전략무기는 다름 아닌 그의 조크다. 핵폭탄 몇백 개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큼 파워를 지녔다. 언젠가 그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이런 농을 던졌다.

"미국인이 소련 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백악관 앞에서 '레이건, 지옥에나 가라'고 외칠 수 있다고. 대통령이라도 맘에 안 들면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잡아가. 소련인이 되받았다. 나 역시 크렘린궁 앞에서 '레이건, 지옥에나 가라'고 외칠 수 있지. 당신보다 더 큰 목소리로. 잡아가기는 커녕 (비밀경찰들이) 손뼉을 쳐주데." 기자들은 웃음바다에 풍덩 빠져 한동안 허우적대야 했다.

같은 평화라도 옛 로마의 '팍스 로마나'와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는 그 결이 다르다. 전자는 정복을 통한 평화의 추구다. 힘이 커지면 옆 나라부터 집어삼킬 궁리를 할 텐데 평화는 무슨. 주변국들은 로마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 그저 입 닫고 가만있을 수밖에. '팍스 로마나'는 어쩌면 '강요된 평화'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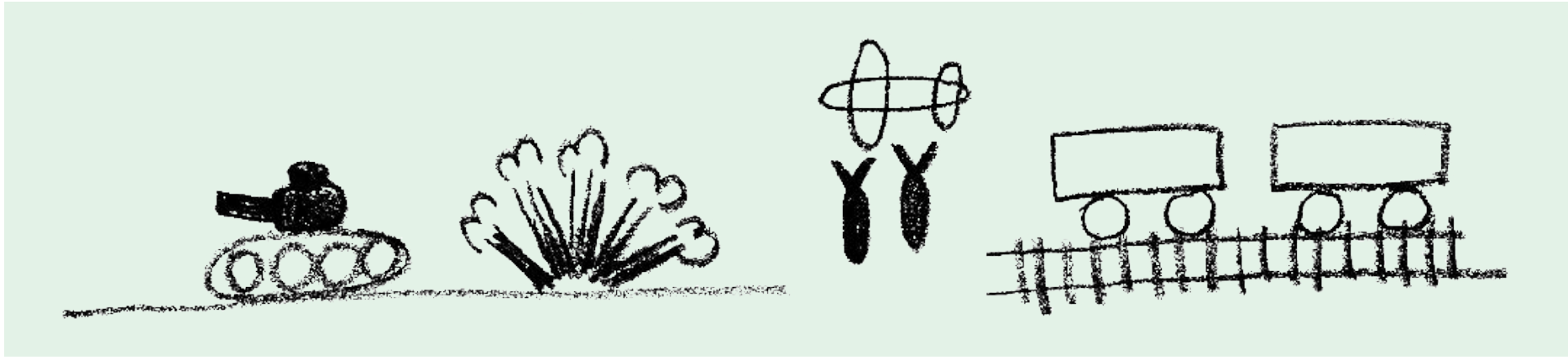
반면 후자는 해방과 자유에 방점이 찍힌다. "고르바초프여, 당장 이 벽을 허물라." 레이건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외친 호통이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결정체다.

문득 레이건의 B급 영화배우 시절 얘기가 떠오른다. "자네 대통령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나." 친구의 말에 레이건이 머리를 극적였다. "왜, 자네도 내 연기가 영 시원찮아? 자꾸 대통령이나 하라고 하게."

레이건의 장례식장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추모사 도중 인용해 화제가 됐던 유머다. 세계 최정상급 조문객들도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기억에 남는다.

세계가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는 요즘, 미국의 마흔 번 째 대통령인 레이건의 미소 띤 얼굴과 함께 촌철살인의 조크가 새삼 그리워진다.

〈편집고문〉



제주도 피란생활 중 집에 혼자 남겨진 필자는 흰 벽에 까만 크레용으로 탱크와 B-29 폭격기 등 전쟁 중 기억나는 것들을 그렸다. 대엿살의 어렸을 적으로 되돌아가 당시 그렸던 것들을 '복원'해봤다.

엄마의 흰 싸락눈

김(구)창화
미대 65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때 엄마는 34세 나이셨고, 한 살 짜리 막내인 나를 포함해 6명의 아이들과 신촌 집 한 채가 남겨졌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가 얼마나 앞이 캄캄 하셨을지, 어떻게 살아가셨을지 짐작도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농촌진흥에 뜻을 두고 뒤늦게 서울대 농대 석사과정을 하고 계셨고, 술취한 운전사의 트럭에 사고 당하셨을 때는 졸업을 일주일 남겨두셨다 하니 그다지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방 후 이북에서 커지는 공산당의 세력을 피해 서울로 이주하여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지할 식구도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다만 이모 한 분이 곁에 계셨는데 그 이모부님은 작은 교회의 목사셨지만 엄마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 가족에게 그 이후 내내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이모부님은 남편을 잃고 오열했을 젊은 과부에게 사고 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엄청난 신앙적 권유를 하셨다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엄마의 용감한 신앙적 결정이 토대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형제들이 축복을 받는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 날이 막막한 속에서 혼자 여섯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하루 지내느라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을 엄마를 눈에 그려봅니다만, 이번에는 얼마 안 있어 터지는 6월 25일의 공산당 남침! 너무나 가혹하여 더 이상 짐작해보려 해도 내 상상의 능력을 초월하고 표현력의 범위 밖입니다.

우리 어린 가족은 꼼짝없이 신촌에서 전쟁을 겪었고, 그 치열했다는 연대산-이대산 전투시에는 집이 바로 그 중간에 있어서 매일 낮에는 봉원천의 상류를 덮은 터널 속으로 도망하여 폭격을 피하였고, 밤에는 온 식구가 흩어짐 없이 다 같이 죽어야한다고 한 이불 밑에서 잤던 기억이 세살 짜리 저의 첫 기억이 되어있습니다.

봉원천을 오가며 보았던 군인들의 피투성이 모습도 어린 나에게 생생합니다. 전쟁의 소리, 폭탄 터지는 광경이 기억에 새겨져 있으나 그 의미를 모르던 저는 한참 커서야 그것이 실제로 전쟁의 장면이었다는 것을 연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엄마는 일 가시고 ~ 어린 나는 집에 혼자 남겨져 탱크를 그리고, 삐이십구도 그리고, 폭탄도 터지고, 다시 탱크, 삐이십구, 기차도 …"**

어느날 이모부님께서 빨리 떠나야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다음 기억은 집에서 저만치 보이는 신촌기차역에서 시커먼 석탄화물칸에 가득히 사람들과 기어 올라 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한 없이 걸었던 시골길이 보입니다. 세살 짜리가 뒤뚱거리다가 주저 앉으면 피란행렬에서 뒤쳐질까봐 엄마와 틴에이저 큰언니가 번갈아 저를 업고서 허리가 부어도 피란길을 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피란 보따리도 있었을텐데 어려서도 통통했던 나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맘이 듭니다.

부산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별 기억이 없으나, 그 다음은 어딘가 작은 교회에 많은 피란민들이 모여 기거하는데, 우리 식구는 목사님 가족이라고 우대 받아 강대의 높은 마루에 따로 자리를 잡았던 것과, 나는 강대상을 독차지하고 놀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곳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피란민들은 큰 군함을 탔는데, 배 앞면의 거대한 문이 내려져 부두와 연결되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배가 떠나려는데 큰오빠가 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시던 엄마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제주도까지 피란갔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는 공산당의 횡포를 보았고 목사의 가족은 더욱 표적이 되기 때문에 부산도 위험해서 더 멀리 피란한 것입니다.

철부지 나에겐 제주도 피란시절이 어린아이의 첫 추억을 만들어주는 꿈 같은 곳이었는데, 젊은 미망인 엄마는 닥치는 대로 떡장사도 하고 모슬포의 한 포목점에서 일을 거들기도 하신 것이 어슴프레 생각납니다.

한 번은 엄마와 포목점에 갔는데 진열창문의 유리가 깨진 구멍으로 드리쳐 살짝 깔린 흰 싸락눈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그 망사 같이 얇게 깔린 뽀오얀 첫눈을 잊지 못합니다. 제주도에서 내 생애 첫눈을 경험한 기억은 항상 엄마만큼 따스히 간직됩니다.

엄마는 일 가시고, 가끔 어린 나는 집에 혼자 남겨져 방안에서 지낸 듯 합니다.

그렇게 방에 앉아서, 장난감이라곤 있을 리가 없으나, 까만색의 제법 굵은 선이었던 걸로 미뤄보아 크레용 같은 것으로 나는 앉은 채 흰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를 그리고, 삐이십구도 그리고, 폭탄도 터지고, 석탄차량을 포함한 커다란 바퀴의 기차도 그리고, 다시 탱크, 삐이십구, 폭탄 터지는 것, 기차…. 하루종일, 혼자 앉아서 말입니다.

나중에 돌아오신 엄마가 앉은 키 높이로 네 벽을 한바퀴 빙 두르고 그려진 일련의 그림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안도의 숨도 쉬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엄마는 두고두고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너는 이담에 크면 그림의 대가가 될꺼라는 말씀도 잊지않고 덧붙이곤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흰벽위에 내 손으로 그려놓은 장면이 지금도 내 눈에 선명히 보입니다.

이렇게 내 어릴때의 기억이 점차 또렷이 깊어지며,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 제주도에서 살던 소박한 시절이 나에게는 푸근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흰 광목 천을 감 물에 물감 들이는 장면, 세 들어 있던 초가집 지붕의 두꺼운 이엉 속에서 큰 지네와 뱀들도 살던 것, 밥 반찬이라곤 고작 밥숫가락 손잡이에 듬뿍 찍은 고추장이었으나 그 맛은 어찌나 고소했던지!

지슬과 댕우지, 자갈이 많은 해변에서 해녀들이 구워준 생 미역귀의 맛, 허벅이라는 물항아리에 물을 철렁철렁 머리에 이고 올 때 잔등이 젖어 돌아오는 큰언니, 보리밭 길, 유치원 때 입술을 빨갛게 립스틱 바르고 군대 트럭에 올라 타고 위문공연하러 가던 일, 제주특산 자리회의 맛, 바위 틈을 후비면 쏟아져 나오던 작은 게, 피란민 교회, 초가지붕에서 떨어지던 빗물….

아, 그리고, 그 무서웠던 돼지우리 겸 변소의 기억! 건너지른 통나무가 비에 젖으면 미끄러워 빠질 것 같았고, 커다란 돼지가 밑에서 주둥이를 바싹 들이대는 태세라도 하면 조무래기 손에 휘둘려지는 막대기가 별 효과 없었던 한심한 기억이 지금 와선 신기한 이야기꺼리가 되었지요.

그렇게 점점 고향의 기억은 늘어나고 부풀어져 가면서, 어린시절 나의 첫기억을 한껏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마의 희생을 기억할 때면, 깨진 유리창 틈으로 들이쳐 살짝 깔린 얇은 흰싸락눈 처럼 가슴이 애처로움에 쌓입니다.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sa.net

www.yongsusanla.com

龍水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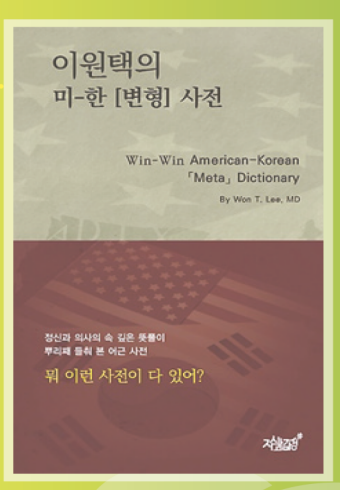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정신과 의사 (의대 '65)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설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1,058,902

종신이사 ($3,000이상) 2022년 2월호

다이아몬드이사
워싱턴주 - 故고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 55)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실버이사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욱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종신이사

남가주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노재성(법대58)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종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서동영(사대60)
서치원(공대69)
심상은(상대54)
심화섭(약대61)
오흥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륭(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종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효동(공대58)
홍병각(문리55)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종(의대56)
김해암(의대52)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랑(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태 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옥(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고일석(보건69)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박경민(의대53)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미시간
정태(의대 57)

미네소타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북가주
강재호(상대57)
민병곤(공대65)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전혜경(문리67)
한만섭(공대49)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시카고
남상용(공대52)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레곤
김상순(상대 67)

오하이오
김용헌(경원66)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박평일(농대69)
이윤주(상대 63)
최지원(의대61)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민홍기(문리61)
방은호(약대43)
이내원(사대58)
오인환(문리63)

워싱턴주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헌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중민(공대64)
손재옥(가정77)
신성식(공대56)
신의석(공대53)
이만택(의대52)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종신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이사
$10,000 이상

(S) 실버이사
$5,000 이상

Seoul Nations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SUNNY H. KIM 개인전

홍선애
(미대 62)

March 5~March 31, 2022

GONG ART GALLERY 공아트 갤러리
2824 Newport Boulevard, Newport Beach, CA 92663
949-220-9380

March 16~April 9, 2022

TAG GALLERY 태그 갤러리
5458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36
323-297-3061

Janice Rha, MD
Radiation Oncology
방사선 암전문치료과

나정자(간호대 70)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rhamd@southlandradiation.com

ALHAMBRA
626-227-2777
707 S. Garfield Ave., Suite B002,
Alhambra, CA 91801

DOWNEY
562-291-6580
10226 Lakewood Blvd Suite B,
Downey, CA 90241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2021.7.1 ~2022.6.30, 제2차 회기:2022.7.1 ~ 2023.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중경(공 48)
강춘자(간 69)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강희창(공 57)
고석규(치 65)
구철희(의 78)
권기상(대 72)
권오근(상 58)
김강수(문 59)
김건진(문 62)
김경수(사 54)
김경수(치 58)
김경숙(간 68)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기덕(문 74)
김난영(공 53)
김동산(법 59)
김동석(음 64)
김문엽(농 83)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새담(법 55)
김생철(법 54)
김석구(공 66)
김석홍(법 59)
김선희(문 66)
김성건(공 56)
김성호(법 64)
김성환(의 65)
김수영(사 57)
김수향(간 68)
김순자(치 57)
김영덕(법 58)
김영도(공 67)
김영봉(사 60)
김영중(치 66)
김영희(간 54)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은숙(미 62)
김의영(문 61)
김일영(의 65)
김자경(사 60)
김자성(의 79)
김재영(농 62)
김재희(문 54)
김준일(공 62)
김진식(공 66)
김창진(공 77)
김태윤(법 53)
김택수(의 57)
김학철(의 55)
김현순(간 69)
김홍묵(문 60)
김화섭(의 55)
김희재(사 66)
김희창(공 64)
나두섭(의 66)
나민주(음 65)
나승욱(문 59)
노명호(공 61)
류정순(생 69)
문병길(문 61)
문인일(공 51)
박명근(상 63)
박민식(수 65)
박부강(사 64)
박영옥(사 55)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임하(치 56)
박정우(의 54)
박제환(문 75)
박종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호성(의 55)
박호현(의 52)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배병옥(음 58)
배윤숙(미 65)
배효식(문 52)
백승호(치 55)
변영근(수 52)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치원(공 69)
선우원근(공 66)
성낙호(치 63)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손학식(공 6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복례(문 83)
신영찬(의 63)
심상은(상 54)
안병일(의 63)
안승호(공 71)
양승문(공 65)
양운택(의 58)
양태준(상 56)
염동해(농 74)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종(농 74)
육태식(의 61)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진수(의 57)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경희(생 69)
이명선(상 58)
이방기(농 59)
이범모(치 74)
이범식(공 61)
이서희(법 70)
이성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안순(간 78)
이영수(상 60)
이영일(문 53)
이영현(간 70)
이용한(공 64)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65)
이유빈
이익삼(사 58)
이장길(치 63)
이재권(법 56)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조숙
이종도(공 66)
이종묘(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이창무(공 54)
이창신(법 57)
이채진(문 55)
이탁성(공 56)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이희충(공 68)
임동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창희(공 73)
임춘수(의 57)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동석(문 66)
장원경(미 73)
장인숙(간 70)
장정용(미 64)
전경배(의 75)
전낙관(사 60)
전범수(농 71)
전상욱(사 52)
전원일(의 77)
정균희(의 65)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신(대 92)
정연웅(상 63)
정예현(상 63)
정인환(법 54)
정정순(사 54)
정진우(의 66)
정철륭(의 55)
정형민(문 71)
정황(공 64)
조동준(의 57)
조만연(상 58)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주영세(사 59)
지종근(농 56)
진석호(공 04)
차종환(사 54)
최영구(상 61)
최영근(사 57)
최영순(간 69)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최찬주(간 69)
추교훈(농 63)
한동수(의 60)
한종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효동(공 58)
현기웅(문 64)
홍병각(문 55)
홍석관(사 46)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황건흠(공 55)

뉴욕
강영선(공 50)
강에드워드(사 60)
강창홍(의 63)
계동휘(치 67)
고순정(간 69)
고애자(음 57)
곽노섭(문 49)
곽선섭(공 61)
권문웅(미 61)
권영국(상 60)
권영대(공 69)
권정덕(의 58)
금영천(약 72)
김광호(의 66)
김명숙(미 57)
김명철(공 60)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석식(의 58)
김석자(음 61)
김영길(문 62)
김영무(공 75)
김영수(법 66)
김영숙(약 53)
김영철(의 55)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우영(상 60)
김욱현(의 59)
김윤수(상 50)
김정희(간 69)
김종원(사 58)
김종현(법 57)
김중권(의 63)
김진자(간 60)
김태일(공 68)
김태호(상 57)
김해암(의 52)
김현중(공 63)
김희국(약 54)
리준무(음 65)
문석면(의 52)
문소자(음 60)
박건이(음 62)
박경희(음 57)
박상(상 55)
박상원(음 6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박은규(약 72)
배상규(약 61)
배정희(사 54)
변건웅(공 65)
변호련(간 63)
석창호(의 66)
선종칠(의 57)
손갑수(약 59)
손경택(농 57)
손규성(사 61)
손완배(농 70)
송기인(의 60)
송웅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의정(음 65)
신정자(간 62)
양거영(의 48)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우상영(상 55)
원인순(문 67)
유재룡(공 58)
유재섭(공 65)
유택상(문 58)
유호근(문 73)
육순재(의 63)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종숙(약 66)
윤철(문 54)
윤현남(공 64)
윤희정(문 59)
이강욱(공 70)
이강홍(상 60)
이명준(공 72)
이문봉(미 76)
이상근(상 84)
이상무(의 56)
이상원(농 62)
이성구(약 56)
이승일(대 66)
이영일(의 60)
이영재(상 58)
이영주(농 83)
이영희(미 68)
이용대(약 63)
이유성(사 57)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전구(농 60)
이정은(의 58)
이종석(상 57)
이종환(법 51)
이충호(의 63)
이태안(의 61)
전성진(사54)
전병삼(약 54)
정동성(상 58)
정화용(사 61)
조규웅(의 59)
조남천(사 59)
조대영(공 61)
조종수(공 64)
조태환(상 56)
주의돈(의 58)
진봉일(공 50)
차국만(상 56)
차수만(약 71)
최영태(문 67)
최정웅(사 63)
최한용(농 58)
최형무(법 69)
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한영수(의 61)
한태진(의 58)
함종금(간 66)
허병렬(사 40)
허선행(의 58)
허영자(약 63)
허정렬(사 63)
현영수(음 61)
홍선경(의 58)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김기남(간 67)
김만옥(약 56)
김문소(수 61)
김부근(의 52)
김선혁(약 59)
김정선(문 66)
김형범(문 57)
박종건(의 56)
박종승(의 56)
송미자(농 62)
윤상래(수 62)
윤영자(미 60)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이기용(공 57)
이영인(사 74)
이의인(공 68)
이종삼(문 54)
장용복(공 58)
정정욱(의 60)

라스베가스
김영중(치66)

록키마운틴스
위장호(의 67)
표한승(치 58)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인(공 88)
변우진(문 81)
성욱진(치 87)
송세진(치 78)
이창재(문 61)
주한수(수 62)
차재호(농 84)

미시간
강신조(공 62)
김재석(의 61)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박천자(사 64)
오동환(의 65)
오혁주(사 88)
윤효윤(의 63)
이민우(의 61)
이성길(의 65)
이재승(의 55)
조문희(공 56)
하계현(공 64)

북가주
강재호(상57)
강정수(문61)
권오형(사61)
김광한(농 63)
김명환(문 67)
김옥경(음 69)
김은용(공 62)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노상규(공 60)
민병덕(상 69)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4)
박성수(공 59)
박영옥(사 55)
박정규(간 76)
손창순(공 69)
신규명(공 64)
심영춘(수 64)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위장호(의 67)
유승일(의 59)
윤성희(사 58)
이강우(문 59)
이민영(문 57)
이성원(공 65)
이은수(사 64)
이정남(공 63)
이창한(공 56)
임승쾌(문 66)
임정란(음 76)
전병련(공 54)
정규남(공 52)
정유석(의 58)
정지선(상 58)
정춘임(간 67)
조태묵(사 60)
천동우(공 63)
최경선(농 65)
탁은숙(문 54)
한상봉(수 67)
홍병익(공 68)
황동하(약 65)

샌디에고
김영애(사 56)
오계환(공 64)
이문상(공 62)
이영신(간 77)
이휘영(법 59)

시카고
고병철(법 55)
김갑중(의 57)
김동희(공 66)
김병윤(문 65)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윤하(공 66)
김인섭(음 68)
김정수(문 69)
김정주(문 60)
김정화(음 56)
김현주(문 61)
김호범(상 69)
남성희(의 56)
노영일(의 62)
민영기(공 65)
박명기(농 61)
박정일(의 61)
박종희(의 69)
박창욱(공 56)
서상헌(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은식(문 55)
연경자(약 65)
유기정(간 72)
윤경순(사 61)
윤덕상(치 62)
안영학(문 57)
이건정(공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봉수(간 69)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상 46)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이용락(공 48)
이준수(공 76)
이정일(농 57)
이종일(의 65)
임복경(문 56)
임영신(의 52)
임현재(의 59)
장세곤(의 57)
장윤일(공 60)
정승규(공 60)
조대현(공 57)
진보린(약 56)
최희수(문 67)
한경진(상 59)
한의일(공 62)
함성택(문 55)
홍청일(약 57)
황치룡(문 65)

알레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계지영(문 60)
김상순(상 67)
박희진(농 78)
최용성(의 55)
한국남(공 57)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김동광(공 62)
김태웅(의 61)
서의원(공 66)
송용재(의 63)
이수자(공 62)
이영웅(의 56)

워싱턴DC
강길종(약 69)
고무환(법 57)
곽명수(문 65)
권철수(의 68)
김내도(공 62)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안정(문 59)
김영기(공 73)
김용덕(의 53)
김윤호(공 64)
김응환(치 88)
김종호(약 68)
김한중(공 56)
김현정(미 94)
김희주(의 62)
남춘일(사 69)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용길(약 56)
박인영(의 69)
박홍우(문 61)
백순(법 58)
서윤석(의 62)
서휘열(의 55)
석균범(문 61)
송병준(약 68)
신상균(의 52)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혜(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영준(의 70)
유정식(수 60)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내원(사 58)
이명덕(사 61)
이선구(문 65)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윤주(상 63)
이종국(의 52)
이준영(치 74)
이호균(법 60)
장윤희(사 54)
전희순(간 76)
정계훈(문 55)
정원자(농 62)
정평희(공 71)
조세진(의 65)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권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의생(수 60)
홍영석(공 58)

워싱턴주
김교선(법54)
김성열(치 61)
김인배(수 59)
김재훈(공 72)
김형록(간 63)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변종혜(법 58)
신재무(사 77)
안승적(농 59)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윤태근(상 69)
이길송(상 57)
이순모(공 56)
이양춘(공 52)
이원섭(농 77)
이회백(의 55)
장대홍(공 65)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최준한(농 58)

유타
김용재(의 60)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준(공 61)
김명숙(농 58)
김영서(상 54)
김용건(문 48)
김종구(수 73)
김태형(의 57)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향순(농 56)
백낙영(상 61)
백성식(약 57)
서광모(공 65)
손종수(의 50)
송용덕(의 57)
신동헌(농 49)
양정자(간 61)
오경호(수 60)
유성무(상 66)
임수암(공 60)
정선휘(공 65)
정양수(의 60)
최종진(의 63)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범세(의 63)
이종영(음 58)
정신호(자 78)
한광수(의 57)
홍훈(자연 75)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유철정(약 61)
최창송(의 52)
최창송(의 58)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공 70)
임효순(간 71)

텍사스
박석규(간 59)
박유미(약 62)
박진성(의 67)
박태우(공 64)
배영섭(의 54)
송요한(문 73)
유한창(공 69)
유황(농 56)
이경화(공 56)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천(의 53)
최휘기(공 71)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김재석(의 66)
박창익(농 64)
안창현(의 55)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전영자(미 58)
조경호(의 66)
최종진(의 63)
최준희(의 58)
한성수(의 54)
황현상(의 55)

필라델피아
강준철(사 59)
고영자(치 63)
길정숙(사 53)
김경숙(문 59)
김경희(가 71)
김국간(치 64)
김규화(상 63)
김상천(농 64)
김재술(약 58)
김정현(공 68)
김주진(법 54)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김훈(의 65)
문대옥(의 67)
배성호(의 65)
서중민(공 64)
성기호(상 59)
성정호(약 59)
송성균(공 50)
송성익(문 59)
신선자(사 60)
심완섭(의 69)
안세현(의 62)
엄종열(미 81)
오진석(치 56)
윤정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성숙(생 74)
이숭공(의 63)
이지춘(미 57)
전무식(수 61)
전방남(상 73)
전희근(의 54)
정덕준(상 63)
정용남(문 60)
정태광(공 74)
정홍택(상 61)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주기목(수 68)
차호순(문 62)
최종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한용오(대 69)

하와이
김달옥(사 55)
이재형(수 61)
최경윤(사 57)
하인환(공 56)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김용환(공 71)
박태우(공 64)
이상강(의 70)
정민재(농70)
최은관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신용(사73)	200
구철희(의78)	125
권기상(대72)	105
김동석(음64)	200
김병연(공68)	200
김새담(법55)	25
김영(수63)	500
김영봉(사60)	200
김영중(치66)	75
김영희(간54)	50
김은숙(미62)	1,000
김은종(상59)	400
김종섭(문66)	100,000
노명호(공61)	20,000
박우선(공57)	500
박원준(공53)	200
박은숙(미62)	200
박종수(수58)	12,000
박혜란(음72)	300
방석훈(농55)	300
성주경(상68)	200
손영아(음)	15
송영두(공59)	200
신영찬(의63)	200
안혜정(생77)	200
오찬수(약57)	200
오흥조(치56)	50
이명선(상58)	500
이범식(공61)	375
이병준(상55)	3,000
이소희(의61)	75
이장길(치63)	50
이창신(법57)	500
장동석(문66)	200
전낙관(시60)	75
전원일(의77)	75
정균희(의65)	10,000
정신(대92)	1,000
정재훈(공64)	260
최용완(공57)	100
최종권(문59)	220
한귀희(미68)	2,000
한홍택(공60)	200

뉴욕

강에드워드(사60)	200
강창홍(의63)	50
고애자(음57)	50
권영국(상60)	200
금영천(약72)	1,000
김명철(공60)	200
김완주(의54)	75
김은희(간78)	200
김중권(의63)	200
리준무(음65)	200
문석면(의52)	200
박순영(법56)	75
선종칠(의57)	100
신응남(농71)	900
이강홍(상60)	200
이재덕(법60)	75
이전구(농60)	500
조남천(사59)	350
차수만(약71)	300
최한용(농58)	1,500
한승순(간70)	150
허선행(의58)	200
홍종만(공64)	200

미시간

김희주(의62)	225
오동환(의65)	200
윤효윤(의56)	200
이성길(의65)	100
이재승(의55)	75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500
박종승(의56)	200

북가주

한상봉(수67)	500

샌디에고

이휘영(법59)	75

시카고

김현주(문61)	100
소진문(치58)	200
이영섭(수56)	75
이용락(공48)	1,000
정의철	250
최희수(문67)	100
한경진(상59)	200

오레곤

김상순(상67)	200

텍사스

이석호(농78)	200
진기주(상60)	500
황명규(공61)	200

플로리다

임필순(의54)	200
조경호(의66)	200

필라델피아

이만택(의52)	200
이숭공(의63)	200
정태광(공74)	100

하트랜드

고 차봉회(의51)	500
이상강(의70)	10,000
최은관	500

워싱턴DC

강길종(약69)	200
고무환(법57)	200
권철수(의68)	200
김동훈(법56)	200
김응환(치88)	200
남욱현(경84)	1,000
박평일(농69)	400
박홍우(문61)	200
백순(법58)	200
석균범(문61)	200
오인환(문63)	600
유영준(의70)	175
이건형(수54)	25
이내원(수58)	75
이선구(문65)	275
이연주(치88)	200
정평희(공71)	200
조화유(문61)	75

미네소타

문성인(공88)	50

워싱턴

민영기(공65)	75

조지아

정양수(의60)	25
김용건(문48)	2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의73)	388

캐롤라이나

한광수(의57)	500

커네티컷

김기훈(상56)	200
최창송(의52)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상81)	240
고석자(인72)	600
김경무(공69)	400
김양희(음77)	1,200
김원탁(공65)	240
김은종(상59)	600
김자성(의79)	1,500
김정빈(공66)	500
나두섭(의66)	200
미주동창회(11대)	1,000
미주재단	4,000
민일기(약69)	500
박수경(생84)	2,100
박제환(문75)	600
박찬호(공58)	300
서동영(사60)	240
서치원(공69)	2,500
안혜정(생77)	200
이기준(법54)	500
이범모(치74)	250
이원택(의65)	1,200
이종묘(간69)	240
임춘택(상68)	400
정재훈(공64)	240
주영세(사59)	400
차민영(의76)	1,500
최용준(수81)	400
한효동(공58)	300
홍훈정(음70)	400

뉴욕

김승호(공71)	1500
석창호(의66)	240
이전구(농60)	240

워싱턴DC

남욱현(경84)	9,30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공53)	300
한홍택(공60)	50,000

시카고

이용락(공48)	300

뉴욕

이강홍(상60)	5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공57)	300
박원준(공53)	700
이범모(치74)	200
홍선일(공71)	100

워싱턴DC

권철수(의68)	100
취재귀(미63)	300

워싱턴주

이원섭(농77)	150

Brain Network

시카고

이용락(공48)	200

지부분담금

워싱턴DC	2,000
뉴욕	3,0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_	☐ **$75**(2021. 7 ~ 2022. 6) ☐ **$150**(2021. 7 ~ 2023. 6) ☐ **$3,000**(종신이사회비)	☐ **$240**(2021. 7 ~ 2022. 6) ☐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 ☐ Charity Fund (나눔) $_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 ☐ 모교발전기금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Payable to SNUAA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rie Blvd.,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l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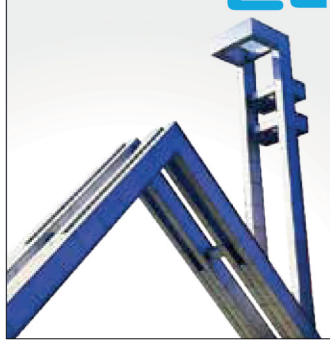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2025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공간이 서울대학교에 탄생합니다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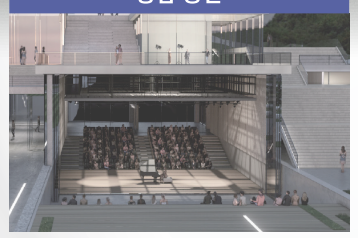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서울대학교 문화관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내를 넘어 서울대가 가진 문화적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는 '문화관 리모델링 · 증개축 사업'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 미래 한국문화 발전의 책임과 지역사회와 소통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문화관 모금캠페인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리모델링 기부자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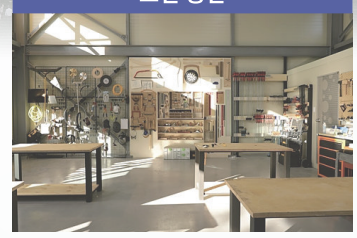
기금을 출연해주신
여러분의 이름을
문화관
곳곳에 새겨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융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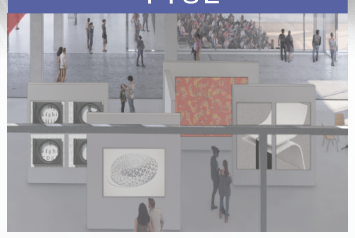
블랙박스형 공간 (300석 규모)	100억
가변형의자	100만원

도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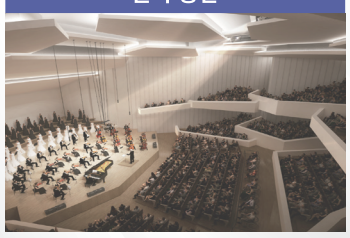
제작공방 (규모별)	20억
영상스튜디오 (규모별)	20억

사색 공간



기부자 갤러리 공간	50억

문화 공간



공연홀 (900석 규모)	200억원 이상
공연홀 의자	100만원
VIP zone (7개실)	10억

창의 공간

기부자 창작공간 (2개실)	20억
기부자 세미나실 (2개실)	20억

지식 공간

기부자 Lounge	50억

* 문화관 네이밍 예우 금액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여는
문화관 모금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목표 310억원

모금기간 2021년 10월 ~계속

문화관 리모델링기금 간단참여신청서 [MH22-03]

성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약정금액: ☐ 정기후원 매월 원
☐ 일시후원 일금 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고문: 김종섭(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흥조(치), 이영묵(공), 이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옥(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우(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논설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정홍택(상),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헌(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aa.org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김철규(공대 60)
cheolk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miale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용문(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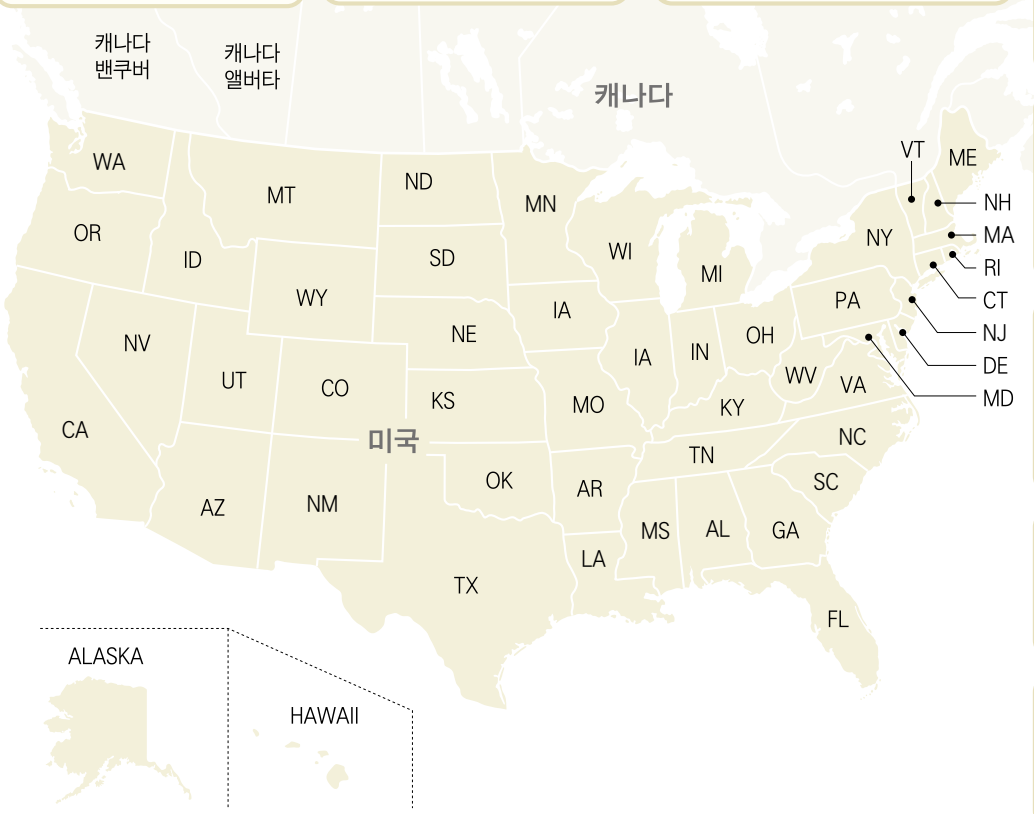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오레곤 OR/ID (Jan~Dec)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정무형(문 70) T: (213)458-4969
chung0520@g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 (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 (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회(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 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차민영(의대76)

멋진 인생 시니어!
제2의 인생 항해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뷰**
아름다운 **시니어**

건강하고 멋진 시니어 인생은
저 이순재와 함께
아름다운 항해로 시작하십시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시니어 분들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니어 배우 이순재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남욱현(경영대 84)

Fairway Asset Corporation *You Can Trust*

“웃음 가득한 편안한 가정, Fairway Asset Corporation 이 함께합니다.”

가정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게지 페이먼트,
단순한 융자 서비스를 넘어서, 건전한 가정경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Fairway Asset Corporation 은 워싱턴 지역 Lender 로서
고객의 편의, 최저의 이자율, On Time Closing Service 를 위해
License 를 갖춘 융자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facloan.com NMLS#293044(www.nmlsconsumeraccess.org)

- VA License No. MC5452
- PA License No. ML48710
- IL License No. MB 6761371
- MD License No. 183469
- NJ License No. 293044
- FL License No. MLD1737
- DC License No. MLB293044
- CA License No. 603J584
- TN License No. 176973
- DE License No. 019327
- IN License No. 27916
- TX License No. 293044
- NC License No. L-169942
- CO License No. 293440
- GA License No. 60069
- AL License No. 22538

Maryland Office
301-279-6969
15400 Calhoun Dr. #120, Rockville MD 20855

Fairfax Office	703-204-0022	DE & PA 지역	267-275-9439
Annandale Office	703-256-6002	NJ 지역	201-888-7456
Centreville 지역	703-371-8343	NC 지역	917-418-3587
Ellicott City 지역	301-279-8662	Richmond 지역	703-309-5755
Silver Spring 지역	301-456-9962	GA(Atlanta) 지역	404-578-1426